

하나님의 말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과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9002 항상 또 다시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이유.....	4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성경 해석.....	6
5957 문자적인 의미는 죽이고 영적인 의미가 생명을 준다.....	6
8845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	7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예.....	9
2056 삼위 일체.....	9
4379 주의 만찬. 영적인 감각. 육체와 피.....	11
8688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일.....	12
영적인 강요.....	14
4840 교회가 만든 계명.....	14
4993 영적인 강요. 도그마.....	15
6640 믿음의 가르침에 대한 의심. 영적인 강요.....	17
정신적 강요의 예.....	19
1375 인간이 추가한 역사. 교회 출석.....	19
1482 죄의 용서. 무오설. 관습적인 행동.....	20
2383b 교황의 무오설.....	21
의식과 관습.....	23
2522 의식을 행하는 의지가 평가를 받는다.....	23
3139 의식과 겉 형식은 방해가 된다.....	24
7246 습관이 된 관습과 말씀.....	24
형식적인 믿음과 형식적인 기독교인.....	27
2254 전통적인 믿음. 순종. 자유로운 결정.....	27
3529 형식적인 믿음. 확신을 가진 믿음.....	28
6309 헛된 삶. 교회 기독교인.....	29
7690 형식적인 신자들에게.....	29
생명력이 있는 믿음과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32
2300 생명력있는 믿음.....	32
6427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력 있는 믿음.....	33
7266 생명력이 있는 크리스천의 특징.....	34
7779 생명력이 있는 크리스천.....	36
그리스도의 교회.....	38

4721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참된 교회의 회원.....	38
4942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39
7072 진정한 교회. 이단들. 영의 역사.....	40
사제의 직분.....	43
2379 설교하는 직분. 올바른 설교자 - 영접하는 그릇.....	43
5669 모든 영적인 교파에서 역사하는 영. 올바른 대변자.....	44
7903 제사장의 직분. 올바른 제자.....	45
교회를 떠나야 하는가?.....	48
0400 모 교회를 떠나는 일.....	48
5571b 형식과 의식. 올바른 예배.....	49
믿음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	51
4012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 생명력이 있는 기독교.....	51
4768 교파들의 무너짐. 진정한 교회.....	51
7216 세상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53
8723 마지막 믿음의 싸움 가운데 세상 앞에서 고백하는 일.....	54
3618 의지의 자유 선택. 교회 조직.....	56
5982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제자?.....	57
8796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지식으로부터 결심에 도달해야만 한다.....	58

항상 또 다시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이유

B.D. No. 9002

1965년 6월 25일

사람의 의지가 자유하고 항상 영이 깨어난 사람이 번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면, 너희는 새 계시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다. 새 계시는 항상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진리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수정해야만 한다.

이런 새로운 계시가 없으면, 잘못 된 가르침을 찾는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나 자신이 모든 변경으로부터 내 말을 보호할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렇다. 그러나 비록 순수한 진리에 관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자유를 빼앗지 않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음을 너희는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

왜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진리를 갈망하면, 진리 위에 서는 일을 보장받을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설교 되면, 너희는 절대로 너희가 변경되지 않은 영적인 내용을 받을 것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가 단지 갈망하기만 하면, 너희가 진리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받았다. 그러면 설교자가 비록 그가 깨어 있는 영을 가

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설교할 때 인도받아 그가 하려고 의도했던 말을 하지 않고 내가 그에게 해준 말을 한다.

왜냐면 그 사람이 진지하게 진리를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진리를 체험하려는 소원을 갖으면, 설교자도 곧 자신의 오류를 깨달을 것이다. 그는 자기에게 다르게 가르쳐주는 내적인 음성을 더 많이 들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내 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거짓을 깨달을 수 있다. 왜냐면 사랑이 그의 영을 밝게 하고 단지 올바른, 거짓되지 않은 지식만을 영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이 내면의 사랑의 빛으로 비추임을 받으면,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잘못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 그는 비로소 오류가 널리 퍼진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적자가 역사할 수 있는 곳을 본다.

그러면 그는 또한 자신 안에 있는 영이 자기를 돕지 않으면, 단지 자신의 이성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안다. 그러면 그는 또한 내가 왜 항상 또 다시 새로운 계시 형태로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수정하는 일이 필요한지 알 것이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나를 계시할 것이다. 왜냐면 잘못된 생각은 많은 잘못된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단지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 원하는 선하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인 나와 다른 잘못된 된 관점을 주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미 많이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생소하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지 못하고 이로써 또한 그를 향해 추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그에 대해 듣는 것은 오히려 너희가 그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하는데 적합하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사랑을 얻기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 위한 모든 기회를 활용한다. 비록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나로부터 직접 온 말을 그에게 하거나 정리 된 생각을 가진 진리에 합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말한다. 왜냐면 너희가 올바른 생각으로 인도받는 일이 그리고 무엇을 영접할 수 있고 무엇을 버려야만 하는지 아는 일이 크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책들 중의 책에서 지식을 얻었다고 이를 통해 올바른 생각을 가졌다는 보장을 받는다고 믿지 말라. 내가 사람들의 의지에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자신의 부족한 지식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 책에서 얻은 사상을 해석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한 모든 말에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 단지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을 통해 생명으로 깨어나는 영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그러면 또한 내가 약속한대로 사람을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한다.

아멘

문자적인 의미는 죽이고 영적인 의미가 생명을 준다.

B.D. No. 5957

1954년 5월 14일

문자는 죽이고 영이 비로소 생명을 준다. 기록된 것을 이웃에게 알리는 너희 모두는 이 점에 주의해야만 한다. 너희는 내 영이 없이 모든 말씀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너희가 모든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고 너희가 이 가운데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고 혼에게 가치가 없는 죽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영이 비로소 생명을 주고 영이 비로소 이전에 어두웠던 것을 밝혀주고 영이 비로소 내 말씀 안에 들어 있는 의미를 너희에게 설명해주고 깨달은 생각이 비로소 말씀을 이제 진리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처리하게 한다.

너희가 성경에서 어떤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느냐? 너희가 모든 것들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고 또한 너희의 의지와 내 영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너희의 능력에 따라 가장 밝은 빛을 너희 안에 밝혀줄 수 있다. 그러므로 잘못된 가르침이 생길 수 있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 왜냐면 나 자신이 아직 영 안에 거할 수 없는 곳은 어디든지 내 대적자가 개입하기 때문이고 내 대적자가 단지 진리에 대항할 수 있다면, 내 말씀을 왜곡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른 방향을 취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진실된 것으로 대변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또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진리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체가 영원으로부터 진리인 분과 상의를 해야만 하고 나에게 증거하는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 그 분에게 영을 깨우쳐주기를 구해야만 한다.

너희는 내 말씀을 단지 이성으로 다뤄서는 안 되고 모든 말씀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올바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찾으려고 노력하기 전에 내 도움을 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너희의 의지가 선하고 순수한 진리를 선포하려고 한다면, 너희의 생각은 진리를 위해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는 진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영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심장이 단지 순수한 진리가 점화시킬 수 있는 빛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것은 말씀 자체인 문자가 아니라 말씀에 숨겨져 있는 의미이다. 비록 내가 이 땅에 거할 때와 그 전에도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 없게 말했음지라도 이런 내 말씀도 또한 심장이 아니라 단지 이성으로 내 말씀을 다루고 내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이런 내 말씀도 변개되거나 또는 합당한 의미로 해석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진실로 말 그대로 문자가 죽일 수 있고 혼에게 죽음을 줄 수 있고 혼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로써 혼이 양분을 얻지 못하고 영적인 죽음에 빠지게 하거나 또는 혼이 완전히 잘못된 음식을 제공받아 생명으로 깨어날 수 없게 된다.

왜냐면 영이 비로소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긴밀하게 영을 구하고 나를 섬기고 이웃의 혼의 문제로부터 이웃을 돕기를 위해 자원하여 나와 진리를 선포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고 그들은 그들이 요청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 포도원에서 나를 위한 좋은 종이 될 것이고 그들은 항상 그들의 주인의 뜻을 행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이 땅의 진정한 내 대리자가 될 것이고 내 대신에 내가 이 땅에서 가르친 것과 같은 말을 같은 의미로 말을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

B.D. No. 8845

1964년 8월 26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많이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항상 앞으로도 변경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헛되이 다음 말을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진리 안에서 인도할 것이다." 나는 내 말이 변경되지 않고 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순수한 진리를 갈망하고 내가 나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할 수 있게 해주는 자들에게 내 영을 보내 준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항상 내 말이 변경이 되지 않게 내 말씀의 깊은 뜻이 유지가 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내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되었는가 이로써 어떤 잘못 된 가르침이 나타났는가 나는 항상 이런 잘못 된 가르침에 대해 싸우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복음서 기록자가 기록을 하게 나로부터 임무를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가 아니라 단지 너희 사람들이 이 기록 된 말씀으로 나를 섬기려는 최고의 의지와 의도로 무엇을 만들어 내는 지이다.

왜냐면 내 기록자 요한 자신도 사람들에게 의해 원본이 변경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로써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 말이 원본의 상태로 유지가 된 것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었다. 원본은 대부분 내 제자들에게 말로 한 것이고 전파되기 위한 것이었다. 제자들은 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했다. 그들은 이로부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타난 것처럼 어떠한 세상적인 조치도 만드려내지 않았다.

이 세상적인 조치들을 실제 내 말씀의 뜻보다 우선에 두게 되었다. 복음서가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번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불가능했다. 영이 깨어난 사람이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로 오류로 드러나게 주장했으면, 이로써 그는 이단으로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면 심지어 내 대적자에게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친 기도를 변경을 시키는데 성공해 내 성품을 잘못 묘사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와 눈이 먼 것을 활용한 것이다.

사람 안의 내 영의 역사에 관해서도 오늘날 이 땅의 내 대리자들 사이에 내 제자들에게 한 이 말이 단지 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어서 모든 사람이 가슴에 영접할 것인지 논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순수한 진리를 이 땅에 보내 준다. 그래서 내 말이 순수하게 남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형식으로 변

경이 일어날 줄 알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항상 필요한 곳에 서로 다르게 깨달은 의견에 기초해서 교회가 나누어 지려고 하는 곳에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 땅의 내 대리자들이 일치를 보지 못했을 때 각 사람이 내 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가운데 이에 관해 논쟁이 일어나서 항상 종파가 나뉘어 지게 되었다. 내 말을 반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의 의미를 바꾸는 데는 성공했다. 이로써 기본적인 내 말들이 오해를 받게 되었고 계속해서 분리들이 일어나고 결국에 가서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서 각자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다 내 영이 역사를 전혀 몰랐다.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설명을 받기 위해 나에게 오는 길을 당연시했을 것이다.

나는 이제 다시 선명하게 만들어 주고 사람들에게 내 의지를 알려 주기 원한다. 이를 위해 나는 나에게 자신을 드리는 나 자신이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그릇을 찾아야 한다. 내가 이 그릇을 통해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들이 내 말을 어떻게 이해하길 원하는 지에 대해 말 해줄 것이다. 왜냐면 현재의 혼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에 맞는 데로 말씀을 해석한다.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려고 하면, 이는 단지 내면의 깨우치게 하는 길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이로써 사람들은 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이 지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웃에게 대변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질문에 답변을 얻게 되고 모든 문제는 해결책을 받는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진리 안에서 인도함을 받은 것이다.

아멘

삼위 일체.

B.D. No. 2056

1941년 9월 3일

하나님의 삼위 일체의 교리는 이미 신자들 사이에 가장 큰 분열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교리를 바로 잡지 않는 한, 즉 수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한, 이런 교리는 항상 문제가 될 것이다.

영적인 어두움이 이런 교리를 만들었다. 영적 어두움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을 했고, 이는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기에 충분했다. 삼위일체에 대해 생각을 해본 사람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단호히 거부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런 교리는 무조건 받아드려야 만하게 되었던 신앙의 교리이고, 이런 신앙의 교리를 영접하도록 강제로 요구함으로써 거부하는 일을 막았다.

세가지 인격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교리이다. 하나님을 실체로 상상하는 일은 인간에게는 이미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실체는 사람에게 고정된 형태의 개념이고, 고정된 형태의 개념이 없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체로 생각한다면, 그는 고정된 형체에게 형상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합당한 일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진리를 벗어난 것이다. 삼위 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세우는 일은 단지 하나님의 본질을 약화시키고, 인간의 제한된 생각을 통해 영원한 신성에 대한 왜곡된 설명을 만들어 냈다. 하나님의 삼위 일체의 개념을, 단지 믿음과 사랑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려는 의지를 통해,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설명할 수 있다.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한 사랑 안에 거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순전히 이성적인 방식으로 분석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런 일은 목표로 이어질 수 없다. 다시 말해 진리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영의 나라로부터 생각을 통해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다.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알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알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믿음과 사랑은 또한 더 나아가 진리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진리에 합당하게,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들은 모든 일의 연관 관계와 초기의 역사와 목적 및 목표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깨닫게 된다. 그들은 모든 것을 통해 흐르는 힘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끊임없이 활동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창조물과 이런 능력과의 연관 관계에 대해 알게 된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이런 모든 지혜를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충만하게 채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능력을 받고, 이로써 그는 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되면, 그는 이제 영원한 신성에 대한 비밀을 헤아려볼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이다. 이런 영적인 것이 이제 사람에게 흘러가면, 그는 다른 헤아릴 수 없는 영역으로 침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결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이성의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영원한 신성의 본질에 대한 신비가 신비로 남게 될 것이다.

삼위 일체의 교리는 이제 인간의 이성애 의해 해석되었고, 세개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교리가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절대로 인격화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이를 통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

영원한 신성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다. 사랑은 모든 것의 생산자이다. 사랑은 우주의 아버지이고,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원초적인 힘이다. 모든 것이 사랑에서 생성되었고,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들이 다시 사랑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다. 사랑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낸다.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성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증거한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다. 모든 것을 생성시킨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원한 신성의 성품이다. 사랑과, 지혜와, 의지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하려는 의지가 형체를 입었다” 라는 말들은 “아버지, 아들, 성령” 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지를 움직여서, 창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이 지혜로써 육신을 입었다.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오게 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이런 지혜를 이해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삼위 일체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이 부족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조차 받아드릴 수 없는 믿음의 교리를 어느정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오류에 빠져 있는가! 왜냐하면 인격을 가진 신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모든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의 나라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는, 순수하게 세상적인 것을, 영의 존재들에게 적용하다. 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은 "그들은 하나이다." 라는 추가된 문구가 있을 지라도, 오류에 빠지게 한다.

사람이 이에 관해 생각을 한다면, 사람은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대해 생각하는 일을 금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명함을 주기 원한다. 인간의 영향력에 의해 사람이 눈이 먼 가운데 길을 걷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자신에게 지식이 없고, 그들의 영적인 지식을 영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성의 생각과 이성적으로 세워진 가르침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진실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고, 단지 영으로 헤아려볼 수 있다.

아멘

주의 만찬. 영적인 감각. 육체와 피.

B.D. No. 4379

1948년 7월 18일

주님의 식탁에서 먹으려는 계속되는 갈망은 주님의 사랑을 보장받게 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원할 때마다 나와 함께 식탁에 참여하도록 너희를 초대한다. 내 식탁은 항상 굶주리고 목 마르고 쾌활하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되어 있고, 그들은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에서 오는 만나로 자신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식탁에서 먹는 모든 일은 연합이고, 나와 하나가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은 내 살과 피를 제공하지 않고는, 나의 말씀의 힘과 함께 나의 말씀을 제공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씀을 직접 또는 내 일꾼을 통해 너희에게 주어져 받은 너희가 이런 나의 말씀을 갈망하는 가운데 너희 심장 안으로 영접하면, 너희는 소통하게 된다. 그러면 내 영이 너희 안의 영의 불씨와 연결을 이루고, 혼인이, 연합이, 영적인 친교가 이뤄진다. 그러면 나는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고, 너희에게 양식과 음료를 주고, 너희와 함께 만찬에 참여한다. 너희는 내가 "받아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 라는 말과 함께 양식을 떼어 주고 포도주를 건네 준 내 제자들과 같은 과정을 경험한다.

너희는 이제 내가 이 말에 어떤 의미를 넣었는 지 이해하느냐? 너희가 내 식탁에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말할 수 없게 중요한가! 왜냐면 내 살과 피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너희는 혼을 위한 양식을 먹어야만 한다. 이로써 너희 혼이 성숙하게 되어 하고, 혼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아야 한다. 혼은 지속적으로 단지 나에게서 직접 얻을 수 있고, 혼이 나와 연결을 이룰 때 내가 언제든지 주는 힘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나는 양식을 떼어 혼에게 제공한다. 혼이 나의 살인 나의 말씀을 먹으면, 내가 축복한 나의 말씀과 함께 혼에게 힘과 피가 흘러 간다.

내 손님이 되기 원하고 혼의 양식을 갈망하는 사람은 굶주리고 피폐해질 필요가 없다. 나 자신이 그에게 다가가 그를 초대하고, 나는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그가 나를 위해 열 때,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만찬을 나눈다. 나는 내 식탁에서 그가 먹게 하고, 그는 진실로 배부르게 될 것이고, 절대로 궁핍으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말한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나는 나의 제자들을 가르쳤고, 나의 제자들은 나를 이해했고, 나의 말씀을 세상에 전했다. 사람들이 올바르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했고, 나의 말씀을 완전하게 깨달은 가운데 내 뜻에 따라 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나의 교회는 완전히 나의 생각대로 세워졌다. 그러나 열심이 지나친 나의 대변자들에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그들은 세상 앞에 드러내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단지 혼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 일을 이웃 사람에게 보여주게 되었고, 외적인 행동이 이와 결부되었다. 초기에는 실제 사람들이 영으로 이 일을 행했고, 내

뜻과 내 뜻을 성취시키는 일에 대해 진지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변했고, 이런 변화와 함께 내 교회의 본질도 변했다.

가장 깊은 내적인 체험이 되어야 할 일이 외적인 일이 되었고, 외적인 의식이 우선이 되었고, 영적인 친교의 단순한 과정이, 나와 연합과 나의 말을 직접 받는 일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나 자신이 선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영을 통한 나의 직접적인 역사를 약속했을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된 나 자신이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에서 오는 만나로 먹일 것에 대해 알려주었을 지라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의 말씀을 직접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까지 깊은 영적 의미를 잃게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의 말의 단순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착각 가운데 단순한 설명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듣고 이해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깨닫게 될 것이고, 진리가 그를 깨우쳐 줄 것이다. 그는 나 자신과 연결을 확립하기 위해 추구할 것이고, 내 손님이 될 것이다. 나는 그와 함께, 그는 나와 함께 만찬에 참여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일

B.D. No. 8688

1963년 11월 29일

인간의 생각은 세상 쪽으로 향해져 있다. 그래서 영적인 가르침을 위해 항상 나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중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해준 영적으로 깊은 뜻이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해석한다. 내 가르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혼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에게 말을 할 때에 항상 말 안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초기에는 올바르게 이해를 하였지만 영적인 의미보다 세상적인 의미를 중요시하고 마침내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내 말은 순수하게 보존이 되지 못했다. 내 말을 통해 영적인 의미와 부합되지 않는 의식과 관습이 생겨 나게 되었다. 내 말은 치료하는 능력을 잃게 되었다. 나의 말이 순수한 형태로 남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성취할 경우에 너희에게 축복을 약속하며 너희에게 영적으로 요구한 것들을 너희는 세상적인 의식으로 바꾸었다. 내가 너희 혼들에게 요구한 모든 것을 세상적인 형식으로 바꾸고 실행하며 너희는 이를 성사라고 부르고 이에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양심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인간이 만든 계명을 지킴으로써 은혜의 보물을 모았다고 믿게 되었다.

이것은 단지 형식이며 겉모양이 빛나는 것이며 너희 혼의 성장을 위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희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이런 너희가 스스로 만들었고 내가 너희 인간들에게 전혀 요구하지 않은 형식에 매여 있다.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거할 동안에 내가 말한 모든 내 말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절대로 외적인 형식으로 바뀌 치기 할 수 없는 것이다. 너희는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 혼의 절대로 도움이 될 수 없는 외적인 관습에 만족해하고 있다.

세례 의식을 생각해 보라. 이것에 어떤 효과가 안타는지를. 너희가 단지 외적으로 실행한 것들을 영적인 성공으로 확신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유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나 중

교적인 모임의 일원이 되는 것이나 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사람 스스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루어야만 하는 것들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의지로 자신이 속죄를 받게 해야 한다. 즉 단지 어린 아이에게 행해지는 세례식으로 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여기에 속해 있다. 자유의지로 의식적으로 나를 따르는 삶을 통해 사랑을 통해 생명력이 있게 된 믿음으로만 다시 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것들이 내가 세운 교회의 특징이다.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성례식과 고해성사를 생각해 보라. 너희가 무엇을 만들어 냈는가? 이런 외적인 것으로 너희가 죄 사함을 희망하는지 생각해 보라. 너희가 나를 모셔드려서 내가 너희와 너희가 나와 성찬을 나누는 것에서 내가 너희가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이를 나를 기념해 행하라. "는 내 말을 너희가 깊은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 한 너희가 사랑을 통해 나와 깊이 연합되어 나 자신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혼에는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하는 과정인데 너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라.

너희에게 영적으로 요구한 것을 너희의 혼만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너희는 세상적인 개념을 혼합시켜 어떤 것을 만들어 냈고 너희에게 이를 요구하면, 너희는 내 뜻으로 여기고 열심히 이를 지켰다.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설명해줘야만 한다. 너희는 나에게 설명을 영접하지 않고 항상 열심히 인간들이 세운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계명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계속하여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깨달을 수 없다.

너희 스스로 너희에게 내 말씀이라고 하면서 주어진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너희에게 족쇄를 채운 것이다. 너희는 내 말을 세상적으로 해석하면서 영적인 의미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오류가 생기는데 이 오류는 단지 너희가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해결될 수 있다. 사랑이 충만해지면 너희 안에 빛이 비추어지고 너희가 오류 가운데 있으면 이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인간이 세운 모든 계명과 성례식들은 어두운 영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세울 수 있는 것으로 너희를 잘못 인도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순수한 진리를 깨달음으로 오류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 오직 순수한 진리만이 혼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단지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다시 말해 내 사랑의 계명을 첫째로 지키는 자만이 이로 인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아멘

교회가 만든 계명.

B.D. No. 4840

1950년 2월 16일

너희가 사람들이 만든 교회 계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내가 너희를 위해 주지 않았다. 너희가 자유의지로 행하는 모든 일은 나의 인정을 받는다. 너희가 강요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든, 습관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명하는 일은 사람들에게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내가 약속하지 않은 보상을 사람들에게 절대로 약속해서는 안 되고, 나는 내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좋다고 할 수 없다. 왜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내린 계명은 의지의 자유를 건드린다. 왜냐면 계명은 자유의지의 사용을 배제시키는 강요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은 사람들에게 단지 하나의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주었고, 나의 영원한 질서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지켜야만 하는 근본적인 법칙을 주었다. 그렇지라도 사랑의 계명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기는 계명이고, 사람이 사랑을 행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내가 또한 그에게 벌을 주지 않고, 그가 스스로 자신을 벌하게 한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잘못으로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수단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었고,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킬 수도 있고 성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내가 좋다고 할 수 없는 계명을 추가로 만들었다. 왜냐면 그런 계명들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단지 권세를 강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고, 이 계명을 성취시키는 일을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는 단체의 속하는 일과 연관시켰기 때문이다. 이로써 단체가 죄를 짓는다는 믿음으로 그런 계명을 지키도록 사람들을 강요했고,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이런 계명으로 향하게 하고, 나의 사랑의 계명을 등한시하게 했다.

사랑은 단지 자유한 가운데 확산될 수 있다. 사랑과 강요는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그런 계명은 만든 권위에 대한 고백으로써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회의 계명을 성취시키는 동안에는, 나는 교회의 계명을 성취시키는 일을 나를 향한 사랑으로 깨달을 수 없다. 게다가 그런 계명은 나를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면 그런 계명은 단지 사랑받기를 원하는 존재인 나를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진 존재로써 순종과 경외심과 인정을 구하는 존재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일이 내 눈에는 단지 죄이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은 절대로 상급을 얻지 못한다. 왜냐면 교회의 계명은 반드시 성취시켜야만 하는 계명이기 때문이다. 자유의지가 사랑으로 나를 결정해야 하고, 그러므로 나의 계명을 성취시키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을 내가 깨닫는 가운데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준 계명 외에는 어떤 계명도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다.

영적인 강요. 도그마.

B.D. No. 4993

1950년 11월 2일

사람에게 가장 큰 위험은 영적인 강요이다. 이 강요가 사람이 깨닫고 스스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는 일을 방해한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한 존재로서 온전하게 되도록 자신을 바꾸어 나가야 하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온전하게 되기 위해 필요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결정해야만 하고, 내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증명해야만 한다.

나는 이런 증명을 요구한다. 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 방향으로 또는 저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의도하도록 행하도록 지배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음을 천명한다. 의지의 자유는 침해받을 수 없게 돼야만 한다. 만약에 법에 의해 의지의 방향을 정해버리거나 약속이나 위협으로 어떤 방향으로 의지를 사용하도록 정하면, 자유의지를 침범한 것이다. 나는 이런 의지의 강요를 절대로 현재도 앞으로도 비록 내가 사람들의 의지에 강요를 하지 않기 위해 이런 일에 공개적으로 대적하지 않을지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단지 이 땅의 영적인 존재의 마지막 성장단계에서 결정하게 할 목적으로 내가 그에게 자유롭게 의지를 사용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 생각하는 개별적 존재이다. 그는 영원 가운데 자신의 의지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 사용한 의지와 잘못 사용한 의지의 결과를 알려주는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고 기뻐하는 일이다. 그가 창조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설명받는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다. 이로써 그가 바르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에게 사랑의 가르침이 전달되었고, 그가 자기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행하도록 타이름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강요가 없이 행해져야 한다.

사람은 가르침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전해진 가르침을 영접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된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이 동인이 되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자유 의지를 주었고 너희는 자유의지를 받았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의 사명을 받아서 일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한다. 나는 절대로 나의 사도들에게 믿을 것을 강요하면서 나의 가르침을 전파하라고 하지 않았다. 왜냐면 강요아래 믿은 믿음은 혼을 구원하고 성장하게 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단지 사람들에게 나를 최고의 온전한 존재로 믿을 것을 요구하고, 나의 전능함과 지혜와 사랑과 사랑의 능력을 믿을 것을 요구한다. 왜냐면 너희가 이를 믿을 때, 너희 자신이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고 다른 모든 믿기 위해 필요한 일을 스스로 깨닫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러면 진리에 합당하게 너희를 가르치는 내 영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강요된 믿음은 온전함을 주지 못하고 강요된 믿음이 생명력 있게 되는 일은 희귀하다. 나는 강요된 믿음을 자유 의지에 대한 결정이라고 받아 들일 수 없다. 왜냐면 의지가 그 사람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대신에 그들은 양육받은 영적 방향에 따라 고백하고, 양육받은 것이 올바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이 믿기를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단지 사랑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믿음도 너희 자신이 얻어야 한다. 너희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사랑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 너희가 먼저 사랑을 행해야만 한다. 그러면 내적인 확신이 비로소 생명을 깨어나게 하는 확고한 믿음이 된다. 왜냐면 자유의지로 이 믿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모든 강요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원래 초기부터 영적인 존재들이 가지고 있었고, 복되게 되기 위해 다시 얻어야 하는 자유를 모든 강요가 침해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는 강요하는 일이 어떻게 내 뜻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영접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믿어야만 한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내 뜻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법을 만드는 가장 높은 입법자로서 모세를 통한 10 계명이 포함되어 있고 자유의지로 사랑을 행할 때만 지킬 수 있는 사랑의 계명 외에는 다른 계명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다. 왜냐면 다른 계명은 나 자신을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졌음을 의심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 평가하여 법을 만들 권한이 없이 법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한다.

모든 법은 강요이고 모든 강요는 나의 의지에 반하는 일이다. 사람이 생각할 자유를 가지고 활동할 수 없다면, 하나의 가르침을 믿어야만 한다면, 그들이 이 땅에서 치러야 할 의지의 시험이 무의미 하게 된다. 왜냐면 그 자신이 결정해야 하고, 이 결정이 강요아래 이뤄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진리의 부합되건 안되건 간에 모든 도그마적인 가르침은 강요이다. 모든 도그마는 영적인 결정을 하는 순간에 자유가 없게 하고 자유의지를 강제로 침탈하는 일이다. 왜냐면 도그마는 그에게 미리 주어져서 단지 죄를 지음으로 도그마를 어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나로부터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받았다. 나는 단지 그들이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요구받을 때, 그 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요구한다. 그가 생각을 했을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영접할 수 없다면, 나는 이를 그의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가 자신의 심장에 물어보지도 않고 입으로 고백하면, 나는 그런 일을 죄로 여긴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에 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의 믿음과 생각을 항상 도그마적인 가르침으로 여길 수 있는 법을 통해 정하려고 한다면, 이는 교만이다.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모든 일은 나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왜냐면 나 자신도 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원하지 않는데, 그가 진리를 영접하도록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실제 항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순수한 진리로 인도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가르침을 영접하거나, 거절할 자유를 준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모든 사랑으로 너희 이웃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이웃에게 결정할 모든 자유를 줘야 한다. 왜냐면 강요된 믿음은 나의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미음의 가르침에 관해 내적인 갈등에 빠지는 일은 항상 단지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갈등은 진리를 향한 의지를 증명하고 그러면 사람에게 생각을 통해 진리를 전할 수 있고 그가 자신을 열고 영접하기 때문이다. 비록 진지하게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이 우선 의심할 지라도 영접할만 하게 직접 전해진 진리가 아닌 경우에는 모든 의심을 절대적인 확신보다 우선에 뒤야만 한다.

이런 경우에 의심은 사람이 자신에게 제공되는 영적인 내용이 어떠한 종류인지 무관심하지 않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믿음의 가르침에 대해 이런 영적인 내용이 진리라는 권리가 있는지 생각하는 일을 금지시킨다면, 그런 조치는 언제든지 정죄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영적인 내용에 대해 생각해볼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유일하게 자신의 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가르침을 영접하도록 요구하는 사람에게 이 책임을 떠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먼저 생각하면, 영적인 내용이 그에게 유용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그가 진지하게 진리를 생각하고 갈망하면, 왜곡 된 또는 진실되지 않은 가르침에 거부감을 갖게 될 것이고 그들 대부분이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진실로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빛의 세계에서 생각으로 그에게 흘러가는 영의 흐름에 자신을 열기 때문이다. 사람이 진리에 도달하는 일은 아주 단순하다. 왜냐하면 진리를 갈망하는 일이 그가 진리를 받게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자가 사람들이 믿게 도와주는 일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도록 미리 생각해둔 술수를 통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을 어느 정도 게을리한다.

이는 대적자가 이를 통해 사람들을 묶고 사람들을 영의 눈이 먼 가운데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그의 수단이다. 그러나 사람도 변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위 교회가 그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 자신에게 문의하고 조언을 받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려는 단 한가지의 생각이 진실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소원을 성취시키기 위한 수단과 길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바로 이런 소원이 없다. 그들은 시험해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모든 믿음의 가르침을 영접하라는 계명 뒤에 숨는다. 이로써 하나님의 대적자가 방해받지 않고 순수한 진리에 첨가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 내고 그러므로 모든 의심은 대적자의 영역에서 대적자를 들어 나게 하는 첫 걸음이고 모든 의심은 그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고 이 땅의 삶이 자유롭게 의지의 결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준 이성을 활용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 도달하고 이 땅의 과제를 성취시키기 원하면, 그의 이성이 이 일을 위해 그를 도울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자는 절대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는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원하면서 이런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강요가 아직 사람들을 지배하고 깨달음을 얻는 일이 금지되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의 내용을 선택하는

일이 금지 된 동안에는 그들은 아직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그들 안에서 떠오르는 의심을 점검해보고 자신이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하려고 하면, 그들은 즉시 대적자를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먼저 근거 없는 것과 거짓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고 그들의 의심이 사라지게 하는 순수한 진리로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영접하게 될 순수한 진리를 그들에게 전한다. 왜냐면 이성을 단지 세상의 일에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영의 일을 헤아려 보고 선명하게 만드는 일도 이성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진지하게 완성에 이르기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도달하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원하고 행동하기를 추구하면, 그는 하나님이 그를 오류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진리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들이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인간이 추가한 역사. 교회 출석.

B.D. No. 1375

1940년 4월 8일

하나님을 알려주는 모든 일은 사람이 가르침을 따르거나 실천한다면, 성공하게 되야만 한다. 그러나 가르침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형태가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는 더 수월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목표에 도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걷기가 아주 어려운 길을 택하고, 반면에 다른 길은 더 쉬우면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설정하지 않은 조건을 자신에게 부여한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인위적으로 추가된 각각의 가르침을 분별하는 일은 도움이 된다.

첫째로 교회 참석을 의무로 만드는 일이다. 이 일은 항상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영을 죽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교회 참석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께 더 많이 향하게 된다는 관점은 아주 잘못된 관점이다. 이런 일은 오히려 가장 깊은 내면의 경험이 되어야 할 일을 기계적인 행동이 되게 하는 위험이 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구한다. 그에게는 교회에 가는 일이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연결을 찾을 수 있고, 이를 위한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경우에 단지 말씀을 듣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교회 방문의 목적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일은 단지 하나님의 전적인 동의를 얻을 것이다. 다른 모든 의식 행위는 크거나 적게 인간이 추가한 것들이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는 용어로 예배에 참석하도록 격려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실제 혼에 대한 작업과는 관련이 없는 의식에 참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해야만 한다. 사람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일원의 자격을 얻기 위한 규정을 따르는 지, 어느 정도까지 따르는 지의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운 교회는 실제 걸 모습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 교회는 걸 모양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원리로 깨달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걸 모습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르침을 깨닫고, 그에 따라 사는 데, 장애물이 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걸 모양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다.

사람들이 바로 많은 형식들을 거부하는 일을 깨닫기가 어렵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정한 계명을 성취시키는 일에 의존하여 영원한 축복이 달려 있게 절대로 만들지 않았다. 그런 예를 들면, 정기적인 교회 방문, 의식에 참석하는 일이다. 이런 의식은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든 연극과 같은 것이고, 인간의 혼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영향을 주지 못한다.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거할 때 걸치레를 거부했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는 기적을 제외하고는 그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확인시켜 주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 생각

해야 한다. 주님은 오늘날 정당화할 수 있거나, 어떤 식으로 든 근거를 댈 수 있는 어떤 걸치레의 일을 한 적이 없고, 그런 의식들은 단지 사람들이 만들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깊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일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없고, 또한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준수하다는 증거로 결코 요구할 수 없는 일이다.

아멘

죄의 용서. 무오설. 관습적인 행동.

B.D. No. 1482

1940년 6월 20일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행하는 의식은 단지 주님이 이 땅에서 가르친 것의 상징이다. 이런 의식을 수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는 단지 유일하게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에 달려 있고, 긴밀한 단둘의 대화 가운데 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에게 긍휼과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일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의식은 다시 단지 혼에게 위험이다. 왜냐하면 의식이 기계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의식을 외부에 알 수 있도록 만들기에는 의식은 아주 많이 내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는 그가 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정해진 의식에 참여하면서, 피상적이 되게 할 수 있는 의식이다.

혼의 구원을 위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은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의식은 쉽게 죽은 행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연약함과 죄짐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죄사함을 위한 전제 조건이고, 모든 외적인 의식은 단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상징이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이제 너희가 처한 위험을 알려준다면, 너희는 반항하지 말고, 하늘의 아버지께 그가 너희를 올바르게 가르쳐 준 것에 대해 심장으로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의 내면의 성장을 위해 사용해야 할 많은 힘을 외적인 형식을 갖추는 일에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랑으로 하는 긴밀한 생각이 하나님의 동의 없이 사람들에게 준 교회의 계명에 부지런히 따르는 일보다 너희에게 훨씬 더 큰 은혜를 준다. 교리의 대표자들은 다시 인간이 만든 교회의 우두머리에게 오류가 없다는 교리에 의한 영적인 규정 뒤로 숨는다. 위로부터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것은 가장 순수한 진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위로부터 자신이 주는 계시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린다. 하지만 결코 사람들을 정하거나, 그들을 강압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서 나온, 자신의 의지를 통해 자유롭게 되는 법과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선포하는 법은 하나님이 준 계명에 개입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공식적으로 조건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행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계명을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가 규정을 따라 행하게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가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고, 그는 이미 그런 계명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곳에서 특정한 시간을 정하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 묶이기 때문이다. 이는 아주 큰 인간적인 오

류이고, 사람의 사랑의 역사가 아주 특별하게 활발하여, 이제 영이 깨어나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실제의 뜻을 깨닫게 되지 않는다면, 이 오류는 싹이 난 작은 식물의 하나님을 향한 내적이 갈망을 죽이는 위협을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실제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는 비로소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준 교리에서 이미 크게 벗어난 교리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 일은 혼에게 가장 크게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혼이 의식적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한 추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혼에게 어떤 계획이 제시되어, 이를 수행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 편에서 행한 선행되는 일을 통해 자신의 혼에 대한 작업을 소홀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은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고 믿는다.

아멘

교황의 무오설.

B.D. No. 2383b

1942년 6월 25일

사 람들이 교회의 수장이 무오하다는 가르침을 믿으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교회의 수장이 세우는 모든 추가되는 가르침이나 결정을 비판 없이 인정해야만 하거나 받아드려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런 일은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사람에게 필수 불가결한 사람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는 완전한 자유 의지로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결정할 수 있기 위해 그는 무엇을 위해 결정해야 할지, 검토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결정하고, 이 한 사람이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을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 소위 교회 수장의 무오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 이런 요구를 계명 형태로, 가르침의 형태로 만드는 일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경우이다. 사람이 이제 이런 가르침을 그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한 채 주저 없이 받아드린다. 그의 결과로써 자유로운 결정과는 무관하게, 깊은 믿음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와 전혀 상관이 없이 기계적인 형식들이 수행이 된다.

실제로 예배가 아닌 예배가 만들어졌고, 크거나 적게 형식인 관습이 도입되었다. 경건을 가장한 대적자의 역사는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일을 막고, 이로써 자유로운 결정을 막는 일에 성공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자는 무오성의 가르침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막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을 사람에게 믿을만 하게 만들면, 그가 더 이상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확인하지 않고 영접한다. 그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미 그를 위해 결정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교회의 수장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선언할 때, 절대로 실수하거나 잘못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만든, 믿음의 가르침과 충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에게 믿음의 가르침으로 제공되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

단지 자유롭게 행한 결정만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 그러나 사람은 결정을 스스로 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에게 믿음의 가르침으로 제공되는 것의 모든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가 심장으로 긍정할 수 있는 것이 비로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도록 강요받은 고백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가르침은 모든 시험을 견디고, 사람이 가르침을 더 깊이 다룰수록, 가르침은 더 설득력이 있게 영접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닌 가르침은 어떤 시험에도 견디지 못하고, 진지하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 의해 거부될 것이다.

아멘

의식을 행하는 의지가 평가를 받는다.

B.D. No. 2522

1942년 10월 24일

하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 사람들을 돕는다. 이런 일은 사람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영적인 소유로 만드는 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일을 성취시키는 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성취로 사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 선한 그의 의지를 평가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믿음이 그에게 가르치는 일을 행하기 원한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의지가 그의 생각과 행동을 정하면, 비록 그가 진리 안에 있지 않더라도, 즉 잘못된 믿음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지라도, 그런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항상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옳아 보이는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실제 항상 올바른 믿음을 받아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들에게 순수한 진리가 전해진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진리 안에 섰다고 믿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드릴 수 없다고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올바른 삶을 살 것이고,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선한 일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그의 의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자체로서는 무가치한 모든 의식이, 이로써 하나님을 섬기려는 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된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한다면, 행하는 일의 형식이 깊은 가치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런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의식이 하나님을 향한 의지에 근거하지 않고 수행이 된다면, 특정한 의식적인 행동은 가치가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런 의식의 행위가 없이 자신의 모든 의지를 드러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의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 높이 평가받을 것이다. 심지어 모든 외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믿는 대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방향으로 향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걸 형식을 엄격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단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고 영접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이 믿음을 통해 요구받는 행동을 수행하는 지에 관계없이, 유일하게 의지이다.

아멘

그 일은 인간의 혼이 혼의 영과 연합하면, 이는 단지 영적인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런 과정은 어떤 식으로든 몸짓이나 의식을 치르는 일을 통해 겉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다. 혼이 영의 나라와 연합을 이루기를 추구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을 추구하고, 영의 나라로 보내는 생각을 통해 빛의 존재들과 접촉을 추구하면, 혼은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킨다. 혼은 더 이상 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므로 모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적인 것이 긴밀한 연결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외적인 형식과 모든 의식은 하나님과, 영의 세계와 긴밀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의식이 순전히 기계적으로 수행되면, 이런 의식은 쓸모가 없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이 의식에 머물면, 영적 연결이 깊이를 잃게 된다. 이 가운데 선한 의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람 자신이 이런 연결을 통해 나오는 힘의 공급을 줄인다. 영적인 것은 세상적인 제한을 용납하지 않는다. 즉 세상적인 제한에 따라 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영적인 연결을 이루고 있음을 외부에 알릴 필요가 없다. 이웃 사람이 자신이 추구하는 일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웃사람이 모든 고요함으로 자신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나 영의 존재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웃 사람이 자신을 따르게 하는 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웃 사람이 영의 세계는 단지 영적인 일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고, 몸을 통한 의식이나 무릎을 꿇는 일도 영의 세계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겸손을 나타내는 행동이 아니라, 겸손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심장 안을 본다. 자주 외적인 행동에 내적인 생명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람 자신이 자주 이런 의식으로 만족하고, 단지 이웃 사람을 위해 의식을 수행한다. 이런 일은 혼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세상적인 관습과 형식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그는 매 자유로운 순간을 활용하여 영의 세계와 긴밀한 연결을 이루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는 세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아드려서는 안 되고, 혼이 단지 영의 나라에 거해야 한다. 이로써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언제든지 혼에게 제공되게 해야 한다.

아멘

시 장이 하는 말에 생명을 주지 않거나 또는 심장이 너희 행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는 말이나 또는 외적인 형식이 성품을 변화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다. 너희 사람들을 위해 많은 규정들이 만들어졌다. 너희는 항상 단지 이런 규정들과 요구들을 너희의 모든 심장으로

함께 하는지 또는 너희가 실제 자신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행동을 통해 성취시키는 단지 빈 형식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따르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요구들을 성취시키는 일이 너희에게 어떤 축복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은 너희를 한 걸음이라도 높은 것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은 항상 단지 행하지 않거나 또는 말하지 않은 것과 같은 헛된 형식이나 말로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점검해보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관찰해보고 스스로 비판하여 너희의 모든 성품이 형식이 되지 않게 해야 하고 너희의 이 땅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진리를 구하라. 무엇이든지 간에 이에 관해 생각해보라. 그런 후 의식적으로 그에 대한 입장을 정하라. 너희가 이제 말하거나 행하면, 항상 너희의 가장 깊은 느낌과 합당할 것이고 심장이 동참할 것이고 이로써 모든 것이 비로소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에게 파고 들어오거나 또는 너희에게 전해진 잘못 된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의식적으로 입장을 정하고 잘못 된 것을 거부하고 올바른 것을 영접할 것이다. 너희가 실제 말하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선명하지 않은 가운데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단지 말하고 행동하는 말이나 행동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실제 하나님이 너희 심장이 참여하지 않은 일에 따라 너희를 평가할 수 없음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을 행하는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의무적으로 행한 것을 상급으로 너희에게 계산해줄 수 없음을 생각할 수 있다. 너희는 교육을 통해 이렇게 행동하는 습관에 빠질 수 있다. 너희는 생각해보지 않으면서 말을 따라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의 이런 말과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한번 입장을 정한 너희의 말과 행동이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행동과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의 생명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고 너희에게 단지 너희 혼이 성장하게 주어진 시간을 가볍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전해지는 모든 것을 점검해 봐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 너희가 어린 시절부터 형식적인 관습을 계속해 성인이 되기까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을 너희가 이성적으로 이에 관해 생각할 능력이 있으면, 생각해야 하다는 것이 선명하게 돼야만 한다.

그러나 이로서 유일하게 너희의 이성만으로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 지를 결정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한번 너희에게 습관으로 자리를 잡은 것의 가치를 생각해보고 스스로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해야 한다. 너희는 헛된 말이나 또는 죽은 행동으로 너희 자신이 만족해서는 안 된다. 행동에 심장이 참여하면, 비로소 이 행동은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는 너희 삶을 의식적으로 산다. 그러면 비로소 하내 질문으로부터 다른 질문이 일어난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가 기계적으로 받아들인 지식이 생명력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너희가 선한 의지를 가지면, 너희는 비로소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다.

너희는 스스로 생명에 도달하게 자신을 도와야만 한다. 심장이 모든 일에 참여해야만 한다. 너희는 모든 형식이나 죽은 말들을 경멸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마지막에 가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성장할 것이고 너희 혼은 영원을 위해 유익을 얻을 것이다.

전통적인 믿음. 순종. 자유로운 결정.

B.D. No. 2254

1942년 3월 9일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오류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일은 올바른 지식 안에 서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이미 특정 형태로 강요된, 즉 자신이 스스로 얻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전통적인 믿음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의지가 부족하다. 그들 안에 하나님은 또한 덕성으로 인정해주는, 어떤 순종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살고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라도 사람에게에는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유의지가 부족하다. 다시 말해 자유의지가 전통적으로 전해진 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게 한다는 깨달음이 부족하다. 그들은 순종하는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제공된 가르침에 대해 생각으로 입장을 취하는 일을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 그는 또한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느낀다. 대신에 교사들이 그에게 전달하는 모든 것을 그는 저항이 없이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가 모든 것이 단지 진리라는 가정을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적인 오류와 부적절함을 완전히 제외시키고, 의심할 여지없이 교사들이 정당하고, 오류가 없는 것으로 깨닫는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은사인, 동물에 대비해 인간의 특권인, 그러므로 합당하게 사용해야 할, 이성과 판단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는 어떤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을 위해 그가 스스로 생각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는 일에 방해받거나, 기존의 믿음의 가르침이 이성과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일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이로써 생각해보지 않고 영접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절대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할 수 없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 높은 성장을 방해하는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그런 가르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타오르게 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면, 그가 이웃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도록 강요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이를 영적인 자유로 느끼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에게 제공된 것을 진리로 생각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취할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의 자유의지가 역사하고, 그가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에는 자신의 결정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런 일은 혼의 높은 성장을 심하게 손상시키는 결점이다. 때문에 진리의 전달자와 빛을 주는 존재가 이에 대항하여 지칠 줄 모르고 싸운다.

아멘

이 땅의 가장 큰 고난의 시기에 믿음이 강하게 되거나 또는 이전에 사람들이 확신할 수 없었던 형식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점에서 각각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게 된다. 그들의 관점은 아직 너무 세속적이고, 그들의 무지로 인해 단지 행복한 이 땅의 삶을 기대하는 영원한 신성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자신의 운명을 조화시킬 수 없다.

그들은 단지 그들에게 모든 편안한 삶을 제공하는 하나님만을 인정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통해 자신들의 이 땅의 행복을 잃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고난이 더 심해질수록, 그들은 하나님과 더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웃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사랑없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단지 형식적인 믿음이고, 진지한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가치가 없다. 그들의 믿음은 먼저 확신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만 한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깝게 연결하는 사람은 단지 소수에 불과하다.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자신의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난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본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이제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된다. 믿음은 그들에게 이런 힘을 주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즉 하나님을 믿고, 모든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 도피하는 사람들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상태는, 그들이 단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건들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동안에는 절망적이게 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만 한다. 이런 믿음은 학교 교육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아직 그들 자신에게서 생명력이 있게 되지 못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은 혼의 성장을 지원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강한 시험이 필요하다. 이로써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생각과 태도가 분명해질 수 있게 되어 한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을 얻기 위해 고난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더 큰 시련을 통과해야만 하는 자신의 운명을 통해 영향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멸망을 받고, 마지막에 가서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새로운 창조물의 과정을 다시 가양만 하는 정당한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

믿는 사람들도 가혹한 시험에 노출이 될 것이다. 그러나 확신이 있는 믿음이 쉽게 흔들리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충실하고, 모든 시련을 견디고 더욱 긴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 왜냐면 그들이 굳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함과 지혜를 믿기 때문이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심판의 날에 그들이 상급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날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낙원으로 인도하고, 모든 고난이 끝이 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주 행복하게 된다.

헛된 삶. 교회 기독교인.

B.D. No. 6309

1955년 7월 11일

사람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웃의 운명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웃의 운명에 영향을 받지 않고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무관심은 노골적인 거부보다 훨씬 더 나쁘다. 왜냐하면 거부는 무지에서 나오고 아직 자세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무관심한 사람의 무관심에 방해할 수 없게 되면, 방해하기 위해 그의 삶에 어려움이 필요한 그를 전혀 도울 수 없고 그러므로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게 된다.

교회에서 믿는 믿음과 겉보기의 종교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적인 공허함 속에서 머문다. 왜냐하면 그들의 혼이 전혀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지 않고 단지 순전히 기계적으로 요구받는 일을 수행하고 그 일에 대한 영적인 자세가 완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은 의인으로 믿는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고 그들의 기독교는 다른 모든 일과 같이 세상적인 일이다.

그들에게 영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에 대해 너무 높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교회에서 요구하는 일을 성취시킨 일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그들이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사는 일을 깨달을 수 없으면, 그들의 삶은 헛된 삶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주 험하게 다뤄야만 한다. 이로써 그들이 혼의 잠에서 깨어나게 해야 하고 그들이 당하는 운명적인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게 해야 한다. 그들 스스로가 운명적인 일을 당해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그들이 진지하게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운명적인 일이 축복이 된다.

사람이 자원하여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면, 이웃의 운명에 영향을 받고 그러면 그가 주변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에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심장은 강박해졌고 사랑이 식었다. 불행이 아주 클지라도 그런 불행이 이웃에게 따뜻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사람들이 원인에 대해 생각하거나 또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려는 생각을 하는 일은 더욱 더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사람들은 위험에 처해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도움의 수단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동안에는 모든 도움의 수단이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힘든 운명적인 일이 항상 사람들에게 일어나야만 하고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난은 유일하게 깨어나라는 부름이고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혼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아직 시도하고 있다.

아멘

형식적인 신자들에게.

B.D. No. 7690

1960년 9월 3일

너희가 이 땅에서 혼의 성숙에 도달하기 위해 단지 한 가지 방법만이 있다. 너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단지 사랑을 통해 너희가 축복될 수 있다는 것

을 말한다. 나는 항상 너희에게 내 사랑의 계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랑의 삶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키지 않으면, 너희가 축복받게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다. 너희는 열심히 사람이 만드려낸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너희는 너희에게 중요한 것으로 강조된 모든 규범들을 지킬 수 있다. 너희가 사랑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영적인 성장을 한 걸음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일을 실행하려면, 너희가 너희 안에서 사랑의 인도를 받는지 또는 너희가 단지 사람들 편에서 주어진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의 역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행하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 너희는 항상 무엇이 너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행하게 만드는지 생각해야 한다. 너희는 사랑이 없는 어떤 일도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교파에 묶여 있는 것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소극적이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관심을 전통적인 관습에 둔다. 그들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제시한 의무들을 성취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통해 그들의 혼의 성장 정도를 절대로 높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그들의 혼이 성장하게 이 땅에 거함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항상 또 다시 혼의 성장을 위해 사랑의 삶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다른 어떤 것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행함을 대신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비록 그들이 사람이 만든 계명을 지키는데 열심히 드릴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혼을 위해 어떤 작은 성공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사랑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모든 일은 다 소용이 없다.

너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고 말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드릴 수 있느냐? 너희가 너희의 형제인 너희 이웃들의 고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너희에게 유일하게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증명하는 공훈이 여기는 이웃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너희가 교파의 관습과 습관과 의식과 의무를 행하는 것에 묶여 있는 것을 느끼면, 너희는 잘못 된 삶을 산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서 영적인 능력을 얻게 선물해준 생명의 능력을 헛되이 소모한다. 영적인 능력은 단지 사랑을 행함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너희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진지하게 여겨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 너희가 외적인 것을 성취시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면서 무관심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다시 인간으로써 너희 가운데 거하면, 내가 다시 인간으로써 너희의 이 땅의 길을 가면, 나 자신이 실제 무엇을 너희에게 요구할지 생각해보라.

너희 사람들이 죽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단지 기계적으로 내 눈에 절대로 가치 있게 평가받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내가 기뻐할 것으로 믿느냐? 너희 사람들이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상상하느냐? 어떻게 너희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생각하는 것이 내 지혜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너희가 "내 뜻"이라고 주장한 의식과 관습과 의식을 내가 어떻게 만족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단지 사랑을 행하는 역사를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할 것이다. 나는 항상 단지 사랑이 동기가 된 것만을 인정할 것이다. 사람이 단지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면, 그가 자기 사랑과 싸우고 이웃을 향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증가시킬 때 혼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이고 너희가 다시 얻어야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은 헛되고 너희는 절대로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생명력있는 믿음.

B.D. No. 2300

1942년 4월 13일

사람에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연합을 갈망하기 위해 사람은 먼저 심장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하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으로 느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자신의 피조물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이런 생명력이 있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추구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믿음은 절대로 다른 것과 대체될 수 없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하나님께 힘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 일은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힘을 요청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 혼자서는 더 높은 성장을 위한 힘을 너무 적게 가지고 있고, 더 높이 성장하는 일이 이 땅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증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모든 확신을 가지고 대변하는 일이고, 또한 이런 확신대로 삶을 사는 일이다. 다시 말해 이런 확신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단지 입으로만 인정하고, 그들에게 믿도록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대로 살라는 요구를 받으면, 그들은 믿음대로 살기 위한 힘을 모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즉 도움을 구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제 진지하게 이에 관해 생각한다면, 그들의 내면이, 그들의 심장이,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전혀 없음이 그들에게 선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삶에서 실패한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제 어떤 근거도 없고, 그가 또한 창조주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은 증명할 수 없고 믿어야 만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심장으로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이런 생명력있는 믿음이 없다. 그들은 실제 입으로는 신성을 말하고, 신성을 믿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피조물에게 창조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지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만물의 연관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인간과 창조주의 관계를 깨닫지 못한다. 인간이 사랑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존재를 확신할 때, 인간과 창조주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는 이제 창조주에게 드리는 기도와 헌신을 통해 자신을 향한 이런 사랑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는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선한 모든 일을 원하는 권세를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이런 존재는 전능하고 사랑이 충만해야 한다. 이런 온전한 존재를 믿는 믿음을 비로소 생명력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은 먼저 활동하도록 자극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마찬가지로 온전하게

되려는 추구를 한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깨닫는 영원한 신성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소원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성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에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필요하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없는 곳에서 의지가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로 머물거나 잘못된 목표를 설정한다. 의지가 세상을 추구하고, 인간은 자신을 창조한 존재와 연결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족이 인간을 창조하는 권세로부터 인간이 독립되어 있음을 가르치는 일을 목표로하는, 때문에 생명력있는 믿음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다양한 믿음의 방향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다.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의식적으로 영원한 신성을 추구하는 일이고, 연합하려는 소원을 갖는 일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생명력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생명력있는 믿음은 심장과 관련된 일이고, 절대로 이성적으로 얻을 수 없는 믿음이다.

하나님은 단지 느낄 수 있다. 심장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믿음도 또한 생명력이 있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이런 느낌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헤아려보려는 사람은 비록 그가 자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생명력있는 믿음은 혼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도록 자극한다. 반면에 형식적인 믿음은 이런 자극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을 생명력있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고, 살아 있는 모든 것은 활동해야만 하거나, 지속적으로 활동하도록 자극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력 있는 믿음.

B.D. No. 6427

1955년 12월 16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싸움에서 너희를 도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부름을 통해 그와 그의 구속 역사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자신을 육신을 입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너희는 예수 안에 내가 육신을 입은 일을 믿어야 하고 이 믿음은 사랑으로 다시 깨어난 생명력 있는 믿음이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단지 사랑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믿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이 사는 사람은 대적자와 싸울 의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가 대적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또한 약한 의지를 가질 수 있고 이런 약한 의지가 그가 사랑을 행하고 대적자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을 막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야 하고 자신의 뜻을 강하게 해주도록 그에게 구해야 한다. 그는 먼저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는 곧 그의 의지가 강해지는 일을 체험할 것이다. 그의 삶은 이제 점점 더 많이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바뀔 것이고 그러면 그의 인간 예수의 신성에 대한 믿음과 그의 구속사역과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가능성을 믿는 믿음이 생명력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

면 그는 확신을 가지고 나와 내 이름을 대변할 것이다. 단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이런 확신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비록 처음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내적인 확신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린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지식일지라도 이런 사람에 대한 생각은 이미 그와 연결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고 이런 연결이 언젠가 그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 준다. 그가 그의 이 땅의 삶을 생각하고 선한 의지가 있다면, 이런 생각이 그를 더 이상 놓아주지 않는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 그를 자신에게 묶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의 모든 생각을 안다. 그가 영원한 그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나와 긴밀한 연결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나 자신이 예수 안에서 그에게 직접 다가 갈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예수를 통해 이런 연결을 일구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에게 순수하게 역사적인 일로 말해줘야 한다. 그러면 내가 생각으로 역사하여 그가 인간 예수가 그런 삶을 살고 행한 이유를 찾으려고 시도하게 하고 그러면 그는 그의 삶과 죽음이 영적인 원인에 기초한 것이라는 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를 얻는 일이 가능하고 이제 그에게 가르침이 진리에 합당하게 제공 된다면, 그는 더 이상 가르침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았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려는 사람이 이 땅에서 아직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일은 어렵다. 왜냐면 아직 전적으로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는 그의 의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일이 그에게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절대로 지식을 얻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이든지 그에게 예수의 이 땅의 삶에 관한 지식이 제공될 것이다. 왜냐면 사람이 예수의 이 땅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시도한다면, 내가 진실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씀이 예수의 사랑의 가르침으로 선포되고 예수 자신이 온 세상에 선포 된다면, 이런 일은 항상 축복된 일이다. 이로써 사람이 진리와 역사적 사실과 그가 예수의 사명을 인정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해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믿음에 도달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이성적인 믿음이 또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생명력 있는 믿음이 비로소 너희 사람들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믿고 내 구속사역을 믿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빛과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너희에게 연다. 너희 모두는 이런 생명력 있는 믿음에 도달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이로써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돼야 한다.

아멘

생명력이 있는 크리스천의 특징.

B.D. No. 7266

1959년 1월 26일

내 영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는 단지 따라가는 자들이거나 또는 형식적인 신자들이다. 나 자신이 이 땅에서 세운 교회의 특징은 내 영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영이 너희 안에서 나타날 수 있으면, 너희가 내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로써

너희가 생명으로 깨어나게 되었다면, 이는 내 영이 너희에게서 너희 안에서 역사함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러면 비로소 너희가 내가 이 땅에 세운 교회에 속한다.

내 영이 역사한다는 증거는 너희가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너희가 진정한 행하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내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올바르게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죽은 크리스천은 이런 특징 나타내지 못한다. 그는 그냥 그의 삶을 산다. 그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한다. 왜냐면 그가 아직 내가 하는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은 진정하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같이 그는 이 땅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삶은 자신 안에 거했던 아버지와 긴밀하게 연결이 된 가운데 쉬지 않고 사랑을 행하는 삶이었다. 이런 긴밀한 연결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와 가장 먼저 이뤄져야만 한다. 그러면 내 영이 이제 역사할 수 있다. 즉 내 영이 모든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과 행동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면서 내 영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사람은 내 영의 인도를 받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영을 통해 나 자신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내 뜻을 알려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땅에 세상의 삶과 함께 두번째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는 영적인 추구를 해야만 한다. 형식적인 신자는 영적인 추구를 할 시간이 없다. 왜냐면 그는 세상이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는 세상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행하는 크리스천의 그의 이 땅의 삶을 부차적으로 산다. 영적인 삶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된다. 왜냐면 나로부터 영이 그를 절대로 놔두지 않으면서 그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영적인 생각과 모든 나와 연결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는 자극과 모든 영적인 지식을 깊이 이해하는 일과 항상 새롭게 영적인 지식을 얻으려는 갈망 등, 이 모든 것은 영의 역사로 볼 수 있다. 이런 모든 특징은 그가 생명력이 있는 크리스천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형식적인 크리스천에게는 이런 특징이 전혀 없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육체의 생명보다 자신의 혼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영적인 연결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결이 그에게 불편해 그는 이를 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가 이런 시험을 치르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이 죽은 크리스천이다. 죽은 크리스천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그가 아직 얼마나 깊은 무덤에 빠져 있는지 그의 영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 자신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나타낼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이 교회의 조직에 속해 있을지라도 교회에 속한 것이 크리스천이라고 일컬을 수 있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은 올바른 크리스천으로 내 교회에 속한 증거인 깨어난 영을 갖는다.

깨어난 영이 이제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삶의 길을 밝혀 주고 진정으로 가장 좋은 뜻으로 사람들에게 역사한다. 왜냐면 너희 안에서 나타내 보이는 깨어난 영이 내 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진실로 단지 너희와 너희 혼을 위해 좋은 것을 너희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가 자신 안의 영을 생명으로 깨어나게 할 수 있다.

이 영은 단지 사람이 그의 이 땅의 과제를 성취하기를 진지하게 원한다. 이 영은 단지 사람이 나를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로 깨닫고 사랑을 행함으로 나와 긴밀한 연결을 이루고 나와 하나가 되길 진지하게 원한다. 왜냐면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 사랑인 나와 연결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에게 내 영이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다. 그에게 빛이 선사 될 것이다. 그는 이제 항상 단지 내 뜻대로 일할 것이고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생명력이 있는 크리스천.

B.D. No. 7779

1960년 12월 22일

너희가 외적으로 크리스천인 것처럼 나타내는 것으로 교회 조직에 속한 것으로 교회 조직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형식과 습관을 행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모든 교회 단체가 대변하고 그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너희가 행하는 일만이 필요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분 자신이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키는 일만이 필요하다.

스스로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산 분이 자신의 교회에 속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기본원칙으로 삼게 했다. 왜냐면 그의 교회는 죽은 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교회는 영이고 생명이다. 그의 교회는 단지 사랑의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 위에 세워졌다. 사랑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에 세운 교회의 특징이다. 왜냐면 사랑과 믿음이 그의 교회의 올바른 상징인 영이 역사하게 허용하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이런 상징을 제시할 수 없으면, 너희는 단지 너희가 속하게 된 단체의 눈먼 추종자들이다. 너희는 생명력이 있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교회 일원이 아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의지의 시험을 치러야 할 너희 혼이 위로부터 오는 이런 능력을 받기 위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능력을 받지 못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없고 너희는 멸망받을 위험 속에 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의 결과인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비로소 영원한 힘의 원천과 긴밀한 관계를 이룬다. 이 땅에서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한 것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그의 목표에 도달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이 원천으로부터 능력을 제공받는 일이 필요하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의 이 땅의 과제를 아주 쉽게 여긴다.

너희는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소개하는 사람들 편에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행하면, 충분히 한 것으로 믿는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의 대리자인지 또는 단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든 것인지에 대해 한번도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가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는 생각할 것이 없이 너희에게 진리로 전해지는 모든 것을 믿는다. 그러나 너희는 이에 근원을 점검하지 않는다. 너희는 영원한 진리 자신에게 그가 너희에게 진리를 전해주시기를 부탁하기 위해 그에게 의뢰하지 않는다. 너희는 진리를 갈망하지 않는다. 갈망했으면, 너희는 진

실로 진리 안에서 인도받았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과제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

정해진 그러나 그럴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자신이 너희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닌 행동이나 규칙을 따르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따른 것으로 너희는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주의를 기울였다면, 너희는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길에 도달했을 것이다.

사랑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사랑만이 너희에게 그의 교회의 속했다고 느낄 수 있는 권리를 너희에게 준다. 왜냐하면 사랑이 유일하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생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바위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성취하고 이를 통해 그의 교회의 올바른 일원이 되면, 비로소 너희를 크리스천이라고 칭하라.

이런 크리스천이 되는 일에 모든 교회의 조직에 속한 너희가 도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 조직이 너희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매를 주지 않는 너희 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만든 계명을 우선에 두지 말라. 왜냐하면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은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진지하게 여기면, 너희는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단지 교회의 형식적인 요구를 성취하면, 너희 혼은 영원히 같은 단계에 머물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떤 성장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장은 단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통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웃사랑은 최종적인 깨달음에 도달하게 하고 영이 깨어나게 한다. 이로써 사람이 더 이상 형식적인 크리스천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가 확실하게 도달하게 될 완성을 진지하게 추구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참된 교회의 회원.

B.D. No. 4721

1949년 8월 22일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왜냐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 많은 인류를 위해 흘린 그의 피를 통해 구원하는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역사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의 교회를 이해할 수 없고,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내가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라고 한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베드로는 그의 제자들 중 가장 강한 믿음을 가졌다. 그는 인간 예수의 사명을 깨달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믿었다. 비록 그가 이 땅의 위험 가운데 세상을 우선에 두었고, 세번이나 부인했지만, 이로 인해 그의 믿음이 더 약해지지 않았고, 단지 그의 육체가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인한 두려움과 위험으로 인해 실패했다. 즉 주님의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표시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에 속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선포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이 그의 이웃에게 가르친 것과 같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만 하고, 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만 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 믿음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 복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단지 올바른 믿음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들을 위해 영원한 행복을 얻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때문이다. (1949년 8월 23일) 그러므로 모든 교파의 추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고, 그의 복음을 알고 그의 신적인 사랑의 가르침대로 그들의 삶을 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속했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예수의 영 안에 머물고, 그의 생각이 절대로 예수를 벗어나지 않고,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예수를 따르려고 추구하는 일이 유일하게 예수 자신이 이 땅에 세운 교회의 특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게 한다. 왜냐면 예수의 복음인 예수의 말씀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시도하고, 자신 안의 영이 깨어나게 하는 영의 역사가 그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일원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그러나 외적인 결속이나, 외적인 형식을 성취시키는 일이나 또는 강제적으로 사람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는 일이 사람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하게 만들지 않는다. 왜냐면 그런 일들은 단지 이름으로만 외적으로 속하는 일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영의 깨어남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우두머리로 여기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다. 왜냐면 목표를 향한 유일한 길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이고, 하늘에서 온 양식과 포도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은 또한 하늘로 인도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구세주 자신과 가장 긴밀한 연합으로 인도해야만 한다. 즉 말씀은 축복되게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말씀은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이고,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이다. 말씀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곳마다 항상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의 심장으로 영접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추종자이고, 항상 단지 영적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교회의 일원이고, 그는 이 땅의 조직에 묶여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진실로 믿을 가진 추종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고백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들 모두가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아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B.D. No. 4942

1950년 7월 27일

내가 실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조직은 원하지 않았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한 내 말에 근거해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고 불리우는 세상 조직의 창시자로 해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 말을 한다. 이 말은 내 모든 말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나의 제자 베드로의 깊은 믿음을 반석으로 이해하면 이 말을 실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

내 교회는 순전히 영의 역사이고, 베드로처럼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나 내 교회는 절대로 순전히 세상적인 조직 안의 사람의 연합이 아니다. 이런 조직에 속하기 위해 외적으로 나타내야만 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규정이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이런 조직은 순전히 세상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조직은 내 뜻과 완전히 반대이다.

내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내가 요구하는 일은 자유의지로 나를 추구하는 일이고, 이를 위해 나를 믿는 믿음과 또한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두가지를 강요하거나 규정을 통해 달성할 수 없다. 나를 향한 사랑은 의무적으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온전함을 믿는 믿음을 통해 깨어난다. 이런 믿음은 실제로 가르칠 수 있지만 요구할 수 없다.

(1950년 7월 26일) 사람은 나에게서 그의 영원한 창조주 아버지에 대한 깨달음을 받은 후에 스스로 믿음에 도달해야만 한다. 스스로 성취한 이런 믿음이 비로소 사람을 내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수많은 회원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성취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는 조직은 내 교회가 될 수 없다. 왜냐면 비록 조직 안에서 믿음과 사랑 모두가 설교될지라도 내가 세운 교회에 속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스스로 의지를 활성화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 조직처럼 사람이 조직을 세우는 일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나는 항상 또 다시 강조한다. 세상 조직 안에는 내가 절대로 인도자의 직분을 준적이 없고, 섬기는 일보다는 더 많이 다스리는 일을 하고, 그들 자신이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을 맹목적으로 믿고, 그들 자신이 아직 생각을 통해 확신을 가진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고,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생명력이 있는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세운 교회에 속하지 않는 서로 다른 계급의 인도자들이 있다.

그들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의 대리자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 자신에게 진리에 합당한 지식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진리에 합당한 지식을 전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생각하지만 후계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믿음의 시험을 받으면 바위와 같은 강함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세운 교회는 자신을 입증할 것이고, 지옥의 문이 내 교회를 압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뜻이 예견했던 대로 그들의 교회의 벽을 흔들면, 그들의 교회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이고, 단지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광신자들이 굳게 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확신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광신주의로 자리를 지키고 나는 이런 일을 신실함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접하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요구하고, 그들이 보게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눈이 먼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너희에게 내 말씀을 묵상하라고 요청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내 교회를 압도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런 내 말씀이 너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생각해보기를 요구한다. (1950년 7월 27일) 나는 너희가 이 말씀을 진리에 합당하게 해석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또한 인간의 해석이 내가 나의 말씀 안에 넣어준 영적인 의미와 언제 일치하지 않는 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너희가 단지 순수한 진리를 추구하는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자신을 이 땅에서 나의 대리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가르침을 받는다면, 너희는 이를 깨달을 수 있다. 나의 올바른 대리자들은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이웃에게 내 말씀과 내 말씀의 깊은 영적 의미에 대해 올바른 설명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대리자들은 비록 이 땅의 조직에 속하지는 않지만 내가 세운 교회에 속해 있다. 나의 올바른 대리자들은 또한 내 이름으로 모든 영적인 조직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알릴 것이다. 왜냐하면 올바른 진리에서 멀어진 모든 것은 비록 사람들이 그들의 교회가 정복당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대변할지라도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내가 이 땅에 세운 교회가 정복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 공동체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영적인 공동체이다. 그들은 이런 믿음을 통해 자신을 내 형상으로 만들 수 있고, 생명력이 있게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내 영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들 안의 이런 영의 역사는 항상 그들이 내가 세운 교회에 속했다는 증거이고 증거로 머물게 될 것이다.

아멘

진정한 교회. 이단들. 영의 역사.

B.D. No. 7072

1958년 3월 24일

만은 영적인 또는 믿음의 방향들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믿음의 방향에 속하게 되는 일이 너희 사람들이 생각하게 해야만 했다. 어린 아이의 의지가 어떤 믿음의 방향에서 자랄지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특정한 믿음의 방향

으로 양육을 받는 일은 그 자신의 업적도 아니고 그 자신의 잘못도 아니다. 한 교파가 또는 다른 교파가 "유일하게 구원을 주는" 교파라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올바르거나 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다른 교파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 그들의 태어남으로 진정한 교회에 속하지 못하게 된 불이익을 하나님으로부터 당한 것처럼 정당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자신이 행하지 않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그가 태어남으로 어떤 교파에 속하게 되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스스로 진리의 빛에 도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진리가 자신의 소유가 되고 자신의 소유로 남게 하기 위해 자신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올바른 땅을 만들어 나가지 않는 동안에는 진리가 교육을 통해 그에게 심겨질 수 없다는 사실이 자신이 속해 있는 특정한 교파를 위해 싸우며 자신이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으로 여기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하늘나라를 위한 특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믿음은 거만한 생각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모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도 마찬가지로 광적이며 자신이 오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로 부터 단지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교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입장을 취할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 한 교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근거를 두었다면, 이런 영적인 방향을 가진 곳으로부터 진정한 기독교인이 나올 수 있고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 비취질 것이다.

왜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키면, 그는 스스로 일할 것이고 자신이 동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에 세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이런 결정해야만 한다. 종교의 근본은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교파가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키는 일에 주의 기울이지 않는 동안에는 비록 그가 유일하고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교파에 속해 있을지라도 그는 그리스도 교회 밖에 있고 진리 밖에 있다.

어떤 사람이 단지 특정한 교파에 속함으로 또는 이 교파에서 요구하는 의식에 참여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진정한 이웃사랑을 통해 증명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일은 어떤 교파내에서도 행할 수 있고 이 일이 순수한 진리를 깨닫게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들이 폐쇄적인 동안에는 모든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영접함으로 그들이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동안에는 교회가 회원의 생각할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동안에는 회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따라가는 추종자들이다. (1958년 3월 24일)

사람이 단지 사랑의 삶을 사는 선행조건을 이룰 때 생명력이 있게 될 수 있는 생명력이 있게 되면, 그는 한 교파가 어느 정도 진리 된 교파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안다. 그러면 그는 실로 이런 교파의 지도자들보다 사람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이웃에게 전할 수 없고 이웃도 순수한 진리로 인도받기 위해 같은 선행조건을 성취시켜야만 한다. 그는 먼저 사랑의 삶을 통해 생명력이 있는 기독교인이 돼야만 한다. 왜냐면

그러면 그의 믿음이 강하게 될 것이고 그는 그리스도 자신이 믿음의 바위 위에 세운 그리스도의 교회 속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절대로 사람을 구원하는데 사람이 어떤 믿음의 방향이나 또는 교회에서 속했는지에 달려있게 만들지 않음을 모든 생각하는 사람들이 깨달아야만 한다. 왜냐면 사람이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이 정함받은 바를 인정할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그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남으로 공동체에 속하게 된 사실이 그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토론할 수 없는 내용이다. 왜냐면 그들은 모든 종류의 교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관점을 아주 열심히 주장하고 그들이 진리의 말을 함을 성경에 근거해 항상 또 다시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단지 이성을 통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단지 사랑이 사람 안의 영이 역사하게 만든다는 말이 적용 된다. 그러면 영이 진리에 합당하게 그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모든 교파의 잘못 된 가르침이 드러날 것이다. 사람이 생명력 있는 기독교인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일 외에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기 원하면, 잘못 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야만 한다.

아멘

설교하는 직분. 올바른 설교자 - 영접하는 그릇.

B.D. No. 2379

1942년 6월 23일

복음을 설교하는 은사는, 설교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려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가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하는 말은 배워서 하는, 그가 단지 학교에서 받아드린 지식을 전하는 인간의 말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랑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해 역사한다. 그러면 그는 단지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주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하지 않는 설교자는 절대로 복음을 위해 성공적으로 자신을 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은 단지 빈 말이고, 그의 말에 생명이 없고, 그러므로 그의 말이 생명으로 깨어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고, 그들 안에 반응을 얻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역사할 수 있기 위해 되어야 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들의 직분은 물질적 이해와 연관이 되어 있다. 사람이 특별하게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그는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설명을 해줄 수 없다. 그럴지라도 그는 인간 편에서 그에게 전해준 대로, 항상 겉모양의 형식을 유지할 것이고, 자신을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처럼 느낄 것이다.

설교의 은사는 사랑을 행하는 일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은 결과이다. 그러면 사람 안의 영의 역사에 제한이 가해지지 않고, 사람이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 말라. 내 영이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가 전해야 할 복음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랑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하는 권리를 얻는다면, 모든 사람이 이런 가르치는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야 한다.

세상적인 연구로는 절대로 영의 역사를 대체할 수 없다. 사랑을 행하는 일이 동시에 실행되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말은 문자적인 말이 될 것이고, 문자적인 말로 남게 될 것이다. 청중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깨우침을 받았고, 그 안에서 말씀이 생명력이 있게 되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심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설교하는 직분은 끝없이 중요하게 여겨야만 한다. 그러나 설교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설교하는 직분을 세상적인 과제와 동일하게 여기고, 설교에 세상 직분들과 같이 시간과 형식으로 제한을 가한다. 설교가 습관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더 이상 가장 깊고, 가장 내적인 요구를 따라 행해지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의 영에 의해 말하도록 촉구를 받아야만 한다. 그는 이를 위해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단지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에서 자신을 쾌활하게 하기를 원하는 굶주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 전파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성취시키는 일이 단지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설교자의 하나님과의 연결이 더 긴밀할수록, 청취자가 이제 더 자원하여 설교자의 말을 받아드릴수록, 이 말이 더 선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청취자 귀로 전달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심장으로 그의 말을 갈망하고, 듣고, 귀로 스쳐 지나가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교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부여되어야 할, 하나님의 영을 위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전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연결을 이루는 길을 보여줘야 한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면, 그는 또한 그의 이웃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들에게 그들이 사랑을 행함으로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 그는 사람들을 사랑을 하도록 양육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모든 영적인 교파에서 역사하는 영. 올바른 대변자.

B.D. No. 5669

1953년 5월 6일

내 영으로 증거하는 모든 사람은 이 땅의 내 대리자들이다. 나를 생명력이 있게 심장 안에 모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대해 증거할 때 그는 내 영으로 충만해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영을 통해 나를 계시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은 순수한 진리를 말하게 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그들이 할 말을 입술에 넣어주고, 나 자신이 그들을 통해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가르침을 선포하는 사람이 나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내 임재가 보장되고, 이로써 또한 순수한 진리임을 보장받게 되면, 모든 영적인 교파에 올바른 대변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단지 내 영으로 말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오류로 숨어들어 온 것에 대해 침묵할 것이고, 그들은 항상 진리에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을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인도하는 영이 내 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영적인 교파와, 모든 교단에 사람들의 심장에 말하고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강력한 설교자가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온 세상에 내 복음을 전하는 확신을 가진 제자들이다. 그러나 그들도 또한 사랑 안에서 산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안에서 내 영이 역사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 자신이 사랑을 실천하는 지, 그가 나와 이웃 사랑으로 충만하여, 나 자신이 그 안에 임재할 수 있고 따라서 그가 나에게 적합한 도구인지가 그가 내 가르침을 올바르게 설교하는 설교자라는 증거이다. 사랑이 인정되는 곳에서 너희 자신을 가르치게 하고, 그 곳에서 내 말씀을 받아들이라.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가 그곳에서 진리 합당하게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그 곳에서 설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는 곳에 나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씀은 생명이 없이 전파될 수 있고, 문자적으로 전달될 수 있고, 듣는 사람이 내 말씀을 향한 갈망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힘이 없고 듣는 사람이 영향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내 영이 그들의 생각을 깨우치고, 죽은 말씀 자체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마치 사랑이 충만한 선포자가 자신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씀이 너무 이해하기 쉽게 될 것이다.

내 말씀 안에 사랑을 통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다. 사랑이 충만한 선포자는 듣는 사람에게 힘을 발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도 또한 내 말씀이 그를 축복하도록 내 말씀을 충만한 사랑으로 갈망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이 주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설교자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너희 자신이 내 말씀을 듣기 원하는 깊은 갈망을 가지면, 내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영이 없이 말씀을 제공하고, 영이 없이 말씀을 받는 일은 말씀이 축복이 없고 힘이 없는 죽은 말씀으로 머물게 한다. 나는 진실로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그들이 내가 그들의 영을 깨워주기를 나 자신에게 구하면, 내가 진실로 그들을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러나 미지근하고 무관심하고, 진리를 알려는 내적인 자극이 없이 그에게 선포되는 내용을 듣는 사람의 생각은 혼란스럽게 되고 어두워질 것이다. 왜냐면 그 자신이 빛을 얻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신이 어디로 이끌리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이끌게 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진실로 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운명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의 혼이 성숙하는 데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무지나 또는 잘못된 지식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는 절대로 자신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다는 변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의 의지가 유일하게 그를 무지한 상태에 처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살기 원하는 사람이 영원으로부터 진리인 나 자신에게 진리를 구하면, 그는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제사장의 직분. 올바른 제자.

B.D. No. 7903

1961년 5월 28일

나는 한때 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뜻을 내 사랑의 복음을 전파해야 했다. 나는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그들을 가르쳤다. 나 자신이 그들에게 사랑의 삶의 모범을 보였다. 그러므로 내 제자들은 내 신적인 사랑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능력을 가졌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삶이 긴급하게 필요한 것을 알려야 했고 그들에게 이런 삶의 나타나는 효과를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이웃에게 알려 주었던 내용을 자기 자신에게서 증명해야만 했다. 그들은 스스로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내 가르침이 진리임을 깨달을 수 있고 스스로 이제 온전함에 도달하기 위해 추구하게 해야 했다.

첫 번째 제자들은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면 내 영이 그들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은 내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 구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통해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내 영으로 충만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을 사랑의 삶을 통해 나와 가장 긴밀한 연결을 통해 특별한 능력을 나로부터 받고 나 자신으로부터 받은 진리에 합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단지 내 올바른 제자들과 이런 제자들의 후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이제 이해할 것이다.

단지 나만이 줄 수 있는 직분을 사람에게 의해 받은 모든 사람을 내 제자들의 후계자라고 할 수 없음을 너희는 이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사람의 성장 정도와 의지를 알고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이런 직분을 위해 택할지 알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직분은 사람에게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직분은 유일하게 내가 결정해야만 하는 직분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의 내적인 성장과 그의 의지가 어떠한지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너희는 아주 올바른 제사장을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자기가 자신에게 직분을 부여한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부름은 이런 부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속해 있기 때문이다. 각 사람의 내면의 삶은 그 사람이 나와 맺고 있는 관계에 결정적이다. 계약은 단지 유일하게 나와 사람 사이에 맺어진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올바른 제자로 내가 세상에 보내는 사람을 내가 유일하게 택하는 일에 진실로 결정해야만 하는 제 삼자가 필요하지 않다. 내 영이 역사하게 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올바른 사명의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도구이다.

그는 자신을 내 제자라고 소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비록 그가 포도원 일을 행한다고 믿을지라도 그가 하는 일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나 자신이 내 제자들을 택했고 나는 현재에도 이렇게 행한다. 그러나 내 부름을 받은 높은 성장 정도에서 있는 종들은 그가 이제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만 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 일을 자원해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그를 통해 그와 함께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그로 하여금 지치지 않고 내 포도원 일을 일하게 몰아 가는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내 제자들은 사랑을 설교하고 사랑을 실천할 것이다. 그들은 올바른 깨달음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나와 내 이름을 위해 모든 세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그들의 위치는 너희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위해 숨어서 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위에 있는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지시를 수행하며 나를 그들의 주님으로 깨닫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유의지로 나를 섬기는 종말 전의 마지막 때의 나에게 신실한 종들이다. 그들은 외적인 명예나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신분과 직위에 있는 내가 한때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는 사명을 주어서 세상으로 보낸 사도들의 후계자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놀라며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올바른 제자는 자신의 사명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부여한 직분을 신실하게 행하려고 한다. 종말 전의 마지막 때에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면, 내 올바른 제자

들은 놀라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나와 내 이름을 모든 세상 앞에 고백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증거할 것이고 강한 믿음으로 나와 내 나라를 위해 나설 것이다.

아멘

모 교회를 떠나는 일...

B.D. No. 0400

1938년 5월 5일

인생에서 가장 큰 어리석은 일은 자신이 속한 교회를 떠나는 일이다. 이 시대가 영적인 사역자들에게 쉬운 시대가 아니다. 그들은 교회에 양들이 남도록 그들의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연이어 나가고 있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사역자들의 직분이고 해야 할 이런 혼들에게 사역하는 일은 비교할 수 없게 어렵다.

이제 주님이 자신이 선택한 종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준다. 이는 사역자들을 그들의 직분에서 몰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에 이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누가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가!

자유의지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복하게 만드는 일은 말할 수 없이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의 심장이 자신에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가 이 음성을 따르면, 그는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단계에 빠르게 도달한다. 그러나 자신의 모 교회와 멀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수한 영적인 것을 전적으로 받아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것을 부정한다. 그래서 자신을 악한 세력에 넘겨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 왜냐하면 자신을 붙잡아줄 수 있는 교회를 떠나 전적으로 믿음이 없이 살려고 하고, 그의 모든 생각의 방향은 단지 현재에만 향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후에 계속 사는 것을 부인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믿음을 떠난 대부분의 큰 이유이다. 사람들에게 한번 큰 위험이 닥친다면 이들은 어쩔 줄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만, 이 하나님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를 모른다.

사역자는 옛 양육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에게 그의 직분을 쉽게 해주는 능력이 사라졌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에게 진실된 깊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거룩한 열심으로 대변할 수 없다. 이 사실이 다른 사실을 설명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사람 안에서 생명력있게 되어야만 한다.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은 구세주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충만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마치 주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말이 사람들의 심장으로 파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고 그를 섬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작은 무리들이 더 긴밀하게 하나가 된다.

모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만약에 그가 자유 의지로 스스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심장으로 깊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는다. 너희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요즘 세상에 이러한 심장으로 싸우는 일이 아주 큰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교회에서 기초가 준비가 되고 사람 안에서 사랑이 역사한다.

이로써 이 땅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르침 속으로 항상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체험할 것이다. 이로써 이러한 교회에는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 한 사람의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목자아래 있게 된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의 심장에 곧 뿌리를 내리고, 그들은 위를 향한 올바른 길로 인도받는다. 그러므로 너희의 모 교회에 충실하고 떠나지 마라.

만약에 너희가 하늘의 아버지가 자신의 종들을 통해 너희에게 주는 것을 귀로만 듣지 않고 심장으로 듣는다면, 너희 자신이 높은 곳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모든 교회가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는 주님 자신이 종들을 통해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을 알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종들은 언젠가 큰 수확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택함 받았다는 것을 알라. 주님의 포도원의 모든 일꾼들 존경하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능력을 받았다. 그의 말을 들으라.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아멘

형식과 의식. 올바른 예배.

B.D. No. 5571b

1953년 1월 7일

너희는 내가 선포되는 모든 교회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르침을 체험한다. 너희가 이런 가르침이 너희의 귀로만 듣고 사라지게 하면, 이런 일은 너희에게 거의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가르침이 심장 안으로 스며들게 한다면, 너희 안에 놓여진 씨앗이 곧 발아되어 싹이 트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곧 발 전체가, 너희의 심장이 풍성한 식물로 채워지고, 너희 안에서 생명이 깨어나고, 너희에게 선포된 내 말씀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 너희 혼은 성숙하게 되고, 너희가 온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 말씀을 너희에게 더 가깝게 해주는 모든 교회가 너희가 축복을 받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내 말씀을 영접하는 일이 첫 번째 조건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너희에게 제공되면, 말씀이 너희에게 제공이 되는 것이다.

너희 사람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대한 지식이 너희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너희가 그의 사랑의 계명을 완수해야만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그의 가르침을 배워야만 한다. 이런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너희에게 전해지는 곳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너희에게 전달되는 일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말씀을 가까이 해주고, 인간 예수로서 이 땅에서 살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 나를 증거하는 모든 설교자들을 축복한다.

그러므로 일어났던 일인 십자가의 내 고통과 죽음과 내가 인간이 된 일과 일어난 내 구속역사에 대한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줘야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해야 한다. 이런 삶은 내 뜻과 일치하고, 어떤 교파가 이를 목표하는 지에 관계 없이 내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고, 내 사랑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고,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으로 느끼는 일과 단순한 이 땅의 나의 삶과 다른 모든 것과 더 나아가 내 신적인 사랑 계명에 추가된

것은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나 자신이 이 땅에 설립한 교회의 참된 일원으로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랑을 가르치는 곳은 또한 스스로 사랑을 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고통이 있는 곳에 고통을 줄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 재물을 주는 사람은 이웃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하고,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통을 완화시켜야 한다.

이런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 사랑의 가르침이 선포될지라도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직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말씀은 단지 공허한 말씀이고, 내 말씀이 아직 심장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 말씀이 아직 인간의 심장 안에서 생명력이 있게 되지 않았고, 씨앗이 돌밭에 떨어져 자라지 못한 것이다. 사랑을 행하는 삶 외에 어떤 다른 삶도 너희에게 축복된 영원한 삶을 줄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설교되는 곳은 진실로 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다. 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실천되는 곳에서 올바른 예배가 드러지고, 이런 예배가 나를 기쁘게 하고, 너희가 예상할 수 없는 축복을 너희에게 준다.

아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 생명력이 있는 기독교.

B.D. No. 4012

1947년 3월 31일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그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만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위해 나서야만 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만 하고, 구속의 역사를 믿어야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을 행하는 삶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는 비로소 기독교의 한 교회에 속한 것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구성된 생명력이 있는 기독교에 속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참된 추종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들을 박해할 것이고, 위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나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세상에 맞서야만 하고, 그들이 이 가운데 자신의 몸의 생명을 잃을 까봐 두려워해야만 하게 될지라도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이 혼을 영원을 위해 깨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양보하는 사람은, 세상에 저항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이 땅의 삶을 돌보지만, 그는 자신의 혼을 파는 것이고, 세상이 그에게 제공하는 것은 영원을 위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을 파괴시킬 가까운 종말을 앞두고 인간에게 선택이 쉽게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이다.

세상의 어떤 위협도 그를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는 세상의 모든 비난에 대해 용기 있고 용감할 것이다. 그러면 또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누구든지 세상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을 나도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기를 원한다." 사람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사랑의 호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의 사람들의 심장 안에 거할 것이고, 사람들은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 안에 거할 것이고, 가장 풍부한 지식을 줄 것이고, 종말의 때까지 말씀 안에서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교파들의 무너짐. 진정한 교회.

B.D. No. 4768

1949년 10월 28일

종말이 오기 전에 나의 말씀과 나를 창조주요 유지자로 알게 하는 모든 일들이 공격을 받는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공개적으로 모든 영적인 것에 대항하는 싸움을 의미하고, 모든 교회 조직과 이에 속한 대부분

의 사람들이 공격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외부로 드러나게 나의 나라와 나의 가르침을 대리하는 사람들에게 대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 조직 밖에서 나의 사랑을 전파하도록 나로부터 부름을 받아 나를 대리하여 일하는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들이 전적인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종말의 때에 이웃사람들을 가르치기에 합당하다. 종말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깨어나게 하는 일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로소 전통적으로 전달받은 가르침이 항상 유효한 것인 생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단지 교회를 통해서 나와 교류하려고 하고, 특정한 교회에 속한 것을 특권으로 믿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하지 않음을 그들은 깨달을 것이다. 비록 자녀가 그에게 주어진 선물인 이성을 활용하지 않음으로, 즉 이성과 심장을 활용하여 언제 자신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지 깨닫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로부터 보냄 받은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는 지 깨닫지 못하고, 이런 자녀가 나를 떠나게 되면, 나에게 다시 돌아가는 길을 찾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지라도, 나는 실제 모든 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나는 항상 그들에게 나의 말씀을 제공하고, 그들 가까이에 거하고, 직접적인 길을 가르쳐 주려고 시도한다. 다시 말해 나는 그들에게 나의 전달자를 보내, 이로써 전달자가 그들에게 설명하게 한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잘못된 길 가운데 있게 되면,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다. 나의 대적자의 활동이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교회를 빼앗으면, 단지 진실로 믿음이 있고 나와 깊이 연결이 되어 언제든지 내가 가까이할 수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강력한 조치들과 무자비한 지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교회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믿음에 관련된 모든 것과 싸우는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열심히 나의 말씀을 대변할 것이다. 너희 모두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만 하는 때를 너희 앞에 두고 있다. 그러면 이 때에 단지 내적인 확신만이 너희에게 너희가 진리 편에 설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너희는 나 자신이 너희에게 전해준 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과 나에게 속하고 나를 섬기려는 모두 사람들은 천사의 입술을 가지고 말할 것이고 이런 말 앞에서 모든 것이 물러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복을 받기 위해 잠시 동안만 견디면 된다는 것을 알고, 모든 외적인 것들이 흔들릴 수 있을 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운 진정한 교회가 지옥의 문에 의해 절대로 정복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세운 것으로 여기는 교회를 내가 돕지 않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에게 의해 세워진 교회에 속해 있는지 점검해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일을 금지당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패배시킬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마치 카드로 만든 집이 무너지듯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것은 지속될 수 없는 인간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 속한 사람은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대항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로부터 능력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이 나를 굳게 믿기 때문에, 그들은 대적자가 넘어뜨릴 수 없는 나의 교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자주 알려주는 이 때가 아주 힘든 때가 될 것이다. 나는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항상 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사랑의 역사를 행함으로 능력을 덧입어 자신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항상 또 다시 경고할 것이다.

이런 싸움이 일어날 때가 가까워졌고 너희는 이제 무장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 자신들에게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고, 스스로 진리가운데 서있다고 여기는 걸치레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넘어질 때에, 너희는 견뎌야만 한다. 그들은 흔들리고,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긴밀하고 생명력이 있는 연결이 너희에게 종말의 때까지 견딜 능력을 주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아멘

세상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B.D. No. 7216

1958년 11월 28일

세상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직 내 영으로 충만해 있지 않다. 그는 단지 빈 그릇이고 영이 없고 생명이 없는 죽은 형체이다. 왜냐면 생명은 나를 깨닫고 나를 이웃에게 고백하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며 내 이름을 말하기를 피하는 것을 통해 나와 내 구속사역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 단지 희귀하게 영적인 대화를 허용하고 허용하면, 단지 불쾌한 가운데 허용하는 것을 통해 너희는 그들이 형식적인 신자인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죽은 추종자로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곳에서는 가장 큰 기쁨으로 내 이름을 고백할 것이고 사람들이 내면으로부터 세상 앞에 나를 고백하게 재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제 얼마나 적게 사람들이 기독교적으로 처신을 하는 지에 그들이 종교나 또는 기독교를 즉 교회나 또는 다른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 일을 피하려고 하는 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나 모든 것이 비밀로 포장되어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나 사람들이 사회에서 하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의 나라에 관한 또는 사람의 이 땅의 과제에 관한 주제를 피하는 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너희는 언젠가 사람들에게 세상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한 분을 고백하거나 또는 거부하기를 요구하면,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단지 소수만이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와 내 나라를 위해 세상 앞에서 나설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심장 안에서 아직 전적으로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올바른 고백이 주는 결과를 자신이 짚기 위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설 것이다. 종말 전의 내 대적자의 역사인 환란을 견디는 사람은 단지 소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지 증거가 될 것이다. 왜냐면 단지 이런 사람이 세상 앞에 큰 소리로 내 이름을 고백하기 때문이다. 단지 이런 사람이 나를 부인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단지 생명력이 있는 믿음 만이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준다.

단지 생명력이 있는 믿음 만이 사람 안에 내 영의 역사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에 내 도움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갖게 한다. 이 때는 누가 나에게 속하였는지 나에게 속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기독교가 지금까지 단지 형식이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들이 구분되는 때이다.

그러면 사람이 이런 또는 저러한 교파를 추종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 자신을 따라야만 한다. 그가 나와 생명력있게 연합이 되어 큰소리로 그의 하나님이요 구세주로서 내 이름을 선포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돼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내 영접을 받을 것이다.

나는 빛의 나라에서 그를 고백할 것이다. 나는 "세상 앞에 나를 고백하는 사람을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고백할 것이다." 라는 내 약속을 성취시킬 것이다. 왜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깨달았고 내 영이 그 안에 모든 충만함으로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아직 내 대적자에게 속해 있고 다시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내 대적자에게 속한 상태로 머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내 이름을 인정하는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의 날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러면 나는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생명은 단지 나로부터 오고 나에게 속한 사람은 생명을 얻고 그러나 마지막 결정을 그에게 요구할 때에 그가 나를 부인하면서 나를 떠나는 모든 사람은 죽음에 도달한다 는 이 말씀을 이해하라. 이런 사람들의 숫자는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축복으로 인도하는 내 무리는 단지 작을 것이다.

아멘

마지막 믿음의 싸움 가운데 세상 앞에서 고백하는 일

B.D. No. 8723

1964년 1월 12일

너희가 잘못 된 생각하는 곳에 너희가 아직 올바른 빛을 소유하지 못한 곳에 너희에게 아직 진리가 부족한 곳에 항상 또 다시 설명이 제공될 것이다. 이는 항상 단지 너희 안의 영만이 알아낼 수 있는 영역들이다. 왜냐면 이성을 통한 결과로는 증명할 수 없고 이 결과는 자주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희들 모든 진리 안에서 인도할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내 대적자가 마지막 때에 아주 분명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인간의 혼을 얻기 위한 싸움에서 나보다 훨씬 더 성공하기 때문에 그가 나보다 더 권세가 있다고 믿으면, 너희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면 그의 권세는 단지 너희를 자유의지의 결과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의지에 제한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나보다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라도 너희 인간들이 어두움의 권세자와 함해 마지막까지 무슨 일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의 모든 결과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와 너희를 자유롭게 놔둔다. 그러나 내 대적자가 그에게 허용 된 권세의 경계를 넘어설 때 내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 너희들 중 어느 누구도 승리하지 못하고 너희는 너희 최악의 끔찍한 결과를 짊어 져야만 한다. 단지 깊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연관 관계들을 알게 될 것이고 나타나는 모든 외적인 현상들 가운데도 내 사랑과 지혜와 권세를 흔들림 없이 믿게 될 것이다.

다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를 의심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나를 대적하고 모든 믿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행동거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를 견디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믿음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면 내 대적자의 역사가 아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닫아 버리고 그가 요구하는 것에 자원해 응한다. 그러면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이 때는 말씀과 기록을 통해 예언 된 때로써 너희는 공개적으로 세상 앞에서 나를 위할 것인지 대적자를 위할 것인지 고백해야만 한다. 나는 이런 공개적인 고백을 너희에게 요구한다. 그러면 너희는 내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자신이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세상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자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를 고백할 것이다."

이를 항상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만약에 너희에게 이런 결정을 요구할 때 너희가 공개적으로 나를 위한 편을 드는 것이다. 이는 마지막이면서 가장 어려운 믿음의 시험이다. 그러나 나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나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든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진리 안에 서있고 무엇 때문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나 스스로 이 땅에 세운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은 실패할 것이다.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고백을 요구할 때에 이를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변명을 할 수 없다. 왜냐면 이런 공개적인 고백이 비로소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부여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 자신이 내 평화의 나라로 데리고 갈 나에게 속한 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너희 모두가 고통이나 두려움이 너희를 누르는 일이 없는 축복과 평안 가운데 새 땅에서 살게 되는 최고의 상급을 받기 위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만 한다. 사랑의 삶을 통해 생명력 있는 믿음에 도달하고 진리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죽은 기독교인들은 비록 그들이 교회에 조직 안에서 높은 또는 가장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세상을 더 많이 향해 있으며 오류를 주장했던 자들은 실패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저항을 할 능력을 각지 못할 것이다.

내 대적자의 역사가 공개적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할 것이다. 왜냐면 대적자의 권세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 보이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단지 적은 무리들만이 나에게 신실하게 남을 것이다. 종말은 거부할 수 없이 임할 것이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가 되어 이 땅에서 살 권한이 더 이상 없고 깊고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곳에서 다시 높은 곳을 향한 성장의 길을 가야만 할 것이다.

왜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구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올바른 생각 안에 거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에게 결정을 요구할 때 너희가 내적인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충분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은 대적자가 너희를 의도적인 오류를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세상 앞에서 나를 고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마지막 싸움에서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아멘

의지의 자유 선택. 교회 조직.

B.D. No. 3618

1945년 12월 2일

인간은 스스로 의지의 결정을 해야만 한다. 즉 인간의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향하도록 정해질 수 없고, 단지 양측의 영향을 받아, 한 방향을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은 항상 단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일로 간주해야 한다. 왜냐면 받아드릴 것인지, 거부할지를 결정하는 일은 그 자신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조직은 단지 인간의 의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 때문에 모든 교회 조직이, 교회 조직의 회원 자격을 통해 실제 달성할 수 있는, 올바른 생각과 의지의 목표라고 절대로 주장할 수 없고, 교회 조직의 회원 자격이 올바르게 인도 받은 의지를 가졌다는 증거가 절대로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적인 공동체는 의지를 바른 방향을 향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만 한다. 왜냐면 사람은 교회 조직이 그에게 부여하는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자신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양육과 습관이 결과될 수 있고, 그런 일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외적으로 준수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비록 사람들이 교회에 순종하면서 수행했을지라도, 깊은 사랑이 없는 의무를 완수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의지의 올바른 결정은 영적인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일을 요구하고, 그런 후 비로소 질문에 대한 의식적으로 입장을 정하는 일을 요구한다. 반면 맹목적인 순종은 의지의 결정이 아니고, 오히려 자유 의지를 제한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제시된 것이 진리인지에 대해 의심이 드는 동안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자주 그에 대한 입장을 취하도록 강요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전해질 것이다. 이로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르친 것과 교회 조직이 가르치는 것 사이에 모순을 찾게 하고, 그들이 모순에 대해 생각하도록 자극하고, 이로써 자유로운 결정을 위해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도록 자극한다.

왜냐면 사람은 이 땅의 시간을 활용하지 않고 보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영적인 내용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가 한 영적인 방향으로 강요를 받고, 스스로 그 방향이 진리인지 시험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이 땅의 시간을 활용하지 않은 것이다. 어느 누구도 교회 조직에 속함으로써 무조건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의 의지가 먼저, 자신이 가르침 받고, 다시 요구받는 모든 것을 생각을 통해 점검해보면서, 스스로 일해야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의 안내자가 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을 구별하는 법을 배울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추가적인 인간의 역사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또한 그의 이 땅의 과제대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너희는 순수한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내 말이라고, 가르쳐 지는 것과 실제 내 순수한 복음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고, 배운다. 내 말이 다르게 해석되어, 결과적으로 다르게 실천하는 일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을 거의 중시하지 않고, 반면 부수적인 것을 강조하여 영적인 진보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음을 통해, 내 말이 변질되었음을 깨닫고 배운다. 나는 가르치고, 나 자신이 내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 돌아 오기 위해 가야만 하는 길을 나도 감으로써,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 주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일하게 보장하는 길은, 다시 말해 혼이 육신의 죽음 후에 내 가까이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빛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길은 사랑의 길이다. 내 가르침은 변질되었다. 내 가르침은 사람들이 첨가한 것들 안에, 잘못된 해석 안에, 내가 절대로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그러나 유일하게 중요한 계명은 지나치고, 지키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계명을 지키는 일 안에 숨겨져 있어 찾아야 한다.

너희가 고행을 하고, 의무적으로 의식을 행하거나 또는 나를 입으로만 고백하면, 사랑의 계명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깨닫지 않고, 또 이에 따라 살지 않으면, 너희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는 무수히 많은 의식으로 나를 경배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행할 때만 나를 경배할 수 있다. 나는 너희에게 나와 너희 이웃을 향한 사랑을 요구한다. 너희가 진지하게 자신을 점검할 때, 너희 안에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는 동안에는, 너희가 매일 그리고 매 시간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칠지라도, 너희들은 올바른 길에 있지 않고, 이러한 행위들은 사람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너희가 경건하다는 것을 남에게 확신시키려는 것뿐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함을 증명해주는 이웃사랑으로 너희 이웃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한, 너희는 바른 경건함에서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 너희 옆에 있는 너희 이웃사람이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에 있는데, 너희가 외적인 몸짓으로 만족하기 전에, 너희가 이름을 붙인 „나에게 영광 돌린다“는 이름아래 세상의 화려한 걸치장으로 세상에 굴복하기 전에, 너희가 이웃사람이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을 최우선으로 감당하려 하지 않는 한, 너희가 얼마나 멀리 바른 경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

나는 너희 사람들이 내 사랑의 계명을 심장에 기록하기 원하면, 실제 줄일 수 있는 고통소리가 들리는 동안에는, 이런 방식으로 너희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이 세상에 거할 동안 어려움으로 고통 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억압받는 사람들을 돌보았다. 이 땅에서 내 제자라고 말하는 너희가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억압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 비록 너희가 내 제자라는 이름을 붙일 지라도, 너희가 도울 수 있으면서도, 돕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 옳바른 제자가 아니다. 나는 내 사랑의 계명을 지켰는지 여부를 따라 평가한다. 왜냐면 모든 다른 것들, 즉 깊은 신앙과, 순수한 진리를 깨달음과, 나와 의 연합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의 복은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이러한 것들은 결코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이미 왜 이 땅 위에 이토록 커다란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인간이 믿음이 없이 오류 가운데 멸망해가는지 볼 수 있다. 내가 이 땅에 전한 내 순수한 가르침은 사랑의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배우고, 실제 행하는 만큼, 너희의 사람들은 진리에 서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들어선다. 너희가 이 계명을 경시하면, 외적인 행위들 만이 증가하고, 너희 혼을 위한 성공에 이르지 못한다. 너희는 오류 속에 머물 것이고, 이 상태로 영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왜냐면 나는 너희가 죽는 순간까지 너희 혼이 도달한 사랑의 정도만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아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지식으로부터 결심에 도달해야만 한다.

B.D. No. 8796

1964년 4월 2일

외적인 것은 내가 전혀 인정하지 않음을 내가 단지 심장의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것만 인정함을 너희에게 말해 두어야만 한다. 너희가 형식적인 행동을 통해 나에게 경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너희는 우상숭배와 같은 방식을 행한다. 너희는 나와 더 긴밀하게 연합이 되기 위해 너희 심장 안에 외적인 형식과 관습과 전혀 무관한 단지 심장만이 말하는 곳에 임할 수 있는 내 임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가 예수의 순수한 가르침을 변경시켰다는 것을 너희 인간이 가르침 안에 첨가를 했다는 것을 단지 사랑의 두 가지 계명이 포함 된 내 복음보다 이런 인간적인 작품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함을 너희에게 말한다.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 가르침을 보증한다. 그러나 너희가 내 복음에 첨가한 모든 인간적인 요구를 아주 양심적으로 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 이런 행위들은 전적으로 가치가 없다. 이런 것들을 너희 혼에게 어떤 가장 작은 유익도 주지 못하고 단지 너의 사람들을 단지 혼돈시켜 너희의 의무를 완성시켰다고 믿게 한다. 그러나 모든 의무적으로 한 일들은 전적으로 의미가 없다. 왜냐면 인간의 의지를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비록 자유의지로 인간적인 요구들을 응할지라도 이런 행동들은 사랑의 역사만이 가져올 수 있는 축복을 가져올 수 없다. 그러나 나에게 대한 긴밀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그의 모든 생각을 나에게 향하게 한다.

그는 혼자 있는 곳에서 나와 긴밀하게 일대일로 대화를 한다. 그는 그의 나를 향한 긴밀한 생각을 오히려 더 방해하는 환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대로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무지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외적인 습관과 관습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특히 사람들의 생각을 잘못 된 곳으로 인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자신은 이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는 모든 내적인 체험과 모든 깨달음을 사랑 안에서 활용할 것이고 항상 나와 연결이 긴밀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심장 안에서 이를 수 있다. 나 자신이 실제 이 땅에 믿음의 바위에 기초한 내 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나는 조직을 만들지 않았다. 이런 조직은 조직 자체만으로도 외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사람이 진지하게 나와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인간의 내면에 감동을 주기 보다는 더 외적인 것에 치중을 한다.

단지 내 말씀만이 교제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내 말씀으로 사람들이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고 사랑을 통해 생명력 있는 믿음에 도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장 긴밀한 나와 의 연결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나 자신이 이 땅에 세운 교회의 일원이다. 나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전해주려고 한다. 그러나 단지 적은 수의 사람만이 진리를 영접한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은 곧 깊은 지식에 도달한다. 이런 지식으로부터 그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왜냐면 어떤 사람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지식에 배치되는 역사가 세웠다면, 이런 역사는 분명하게 내 대적자의 소행으로 세워진 것이다. 그의 모든 외적인 형식들이 내 고유의 의지를 전적으로 잘못 소개하려는 경향으로 증명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은 내 대적자의 역사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해야만 한다.

나로부터 그에게 전해진 진리를 자신에게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 또는 자신의 낮은 성장 정도로 인해 영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버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은 이해하기 쉽다. 알고 있는 사람은 오류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오류 가운데 즉 대적자의 역사의 남는다면, 그는 단지 세상적인 요구만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이웃들 고려하는 세상적인 행사일 뿐이다. 그럴지라도 진리로 인도하고 그들의 불신을 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전통에 대항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단지 작은 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이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의 진리를 향한 열망이 특별하게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은 어떠한 타협할 수 없다. 나는 단지 너희에게 오류와 진리에 관해 선명하게 설명해줄 수 있다. 너희 스스로 결심을 해야만 하고 너희 결심을 증명해야만 한다. 너희가 순수한 진리 안에서 인도 받는 것은 실제로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내 영이 아주 큰 소리로 한 사람에게 말해 그가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그의 진리를 향한 의지에 응답해 그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일은 한편으로는 내 사랑의 행위이다. 이런 은혜의 선물은 사람들이 진리를 영접하면서 그리고 아직 전통적인 조직적인 규정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대변하면서 활용되어야만 한다.

이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이 내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비록 내가 한번 진지하게 나를 선택한 사람을 더 이상 대적자에게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 포기하지 않을지라도 항상 대적자가 그들의 의지를 연약하게 하여 그들을 다시 얻을 수 있게 시도할 위험 가운데 있다.

아멘